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학위논문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

201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강 미 선

국문초록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중 같은 국가에서 왔지만 서로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하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일상 세계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가족, 경제 등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좌절되는지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 하는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법적 지위가 형성과정과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대응방식을 보고자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필자가 조선족여성 및 한족여성과 진행한 심층면접 내용을 중심으로 이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한다.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하는 기대, 이 두 기대의 상호 작용 방식, 이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생활에서는 남편과의 가사, 육아 분담 및 시부모 등 기타 가족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또 경제활동에서는 이 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특징 및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와 기존의 작업환경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 및 여성들의 대응방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외국인에 대한 포섭과 배제, 민족의 의미 등을 이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의 분석을 비교방식으로 재구성을 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족 여성과 한족 여성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하는 시도이다. 이들은 출신국가는 같지만,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원이 다르다. 이런 민족적 차이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다른 '대응방식'을 나타낸다.

가족생활에서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은 '가부장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지만 조선족 여성이 상대적으로 순응적인 특징을 보이고 한족여성들이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출신국가의 정치, 경제 등 환경은 비슷하지만 민족 집단 별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가족영역'내의 문화는 서로 상이한 것과 관계된다. 조선족 여성은 '한국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가족 내 위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한족여성은 가족생활에서 '한국인 여성'이 도맡아 하는 가사와 관련된 문화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이것은 한국남성 및 가족문화가 가부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신을 평등한 가족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까지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자들은 노동이주자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서비스, 가사, 단순노무 등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에 있어 고용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이주자와 다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고용주 혹은 직장 동료와 평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차별과 배제를 받는 공통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하층', '외국인', '여성' 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족여성은 가족생활에서와 반대로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에 더 민감하고 '경제적 기여 - 정당한 대가', '동포' 등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한족여성들이 가족영역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모

습과 달리 조선족은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비판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특히 '경제적 하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 받은 경험이 많은 것은 '민족'보다는 '직업계층'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역할은 가족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민족적'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조선족보다 한족여성이 더 강하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과 한족은 '민족'에 기반하고 있는 '공민' 개념이 한국사회의 '국민' 개념처럼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6장에서는 그 이전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민족적 자원'등을 동원하여 한국가족 내에서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한다.

주요어: 국제결혼, 가족생활, 경제활동, 조선족여성, 한족여성

학번: 2010-23977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자원 ····· 6
제3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5
제4절: 논문의 구성 ····· 19

제2장: 국제결혼의 법·제도적 변화 ····· 21
제1절: 국제결혼의 변화 추이 ····· 22
제2절: 국적법 ····· 35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41

제3장: 조선족여성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특징 ····· 44
제1절: 조선족 국제결혼이주 현황 ····· 44
제2절: 가족생활영역의 특징 ····· 46
제3절: 경제활동영역의 특징 ····· 55

제4장: 한족여성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특징 ····· 65
제1절: 한족 국제결혼이주 현황 ····· 65
제2절: 가족생활영역의 특징 ····· 66
제3절: 경제활동영역의 특징 ····· 84

제5장: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에 관한 비교 분석 ····· 91
제1절: 가족생활영역에서의 비교 ····· 91
제2절: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비교 ····· 100
제3절: 소결 ····· 107

제6장: 결론 ····· 11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08
제2절: 비교평가 ····· 115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19

표 목차

<표 1> 조선족 여성 기본정보 ····· 18
<표 2> 한족여성 기본정보 ····· 19
<표 3>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총계 ····· 22
<표 4> 가족생활영역 ····· 108
<표 5> 경제활동영역 ····· 10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의 권리가 기존의 국민국가체계로는 보장이 되기 어려운 점들이 관찰되고 있다. 즉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행사되고 인정되는 권리, 곧 시민권의 이론적 개념과 제도적 실천에 상당한 도전과 재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황정미, 2011).

한국은 90년대 이후 이주자가 급증하여 최근에 100만을 넘게 되면서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주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송출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이다. 한국으로 이주 및 정착 하는 인구가 나타난 것은 80년대 말 중국 조선족들이 친척방문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바람”이 불면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 되었다(이혜경, 2006). 그 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한족들의 이주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제3세계 이주자 숫자 급증했다.

기존의 시민권 논의는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 지위 관련하여 노동이주자의 경우 체류권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의 장벽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특정한 국민국가에 ‘입장할 권리’ 그 자체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황정미, 2011).

본고는 법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차원으로부터 나아가서 현실생활 즉 일상사 차원에서도 시민권에 대한 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곧 사회적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민권이란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로부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사회

구성원임을 인정받는 것이다(장미경, 2001). 따라서 사회적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 즉 정치, 경제 등 영역에서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정의 영역이 공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까지 사회적 시민권의 사고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기본 구성단위이며, 가족 내에서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과 서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이주자 중에서 결혼이주자는 노동이주자와 다르게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체류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한국의 영주권 혹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집단이다. 즉 이들에게 결혼은 시민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가 가족이라는 영역과 기타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평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법적지위의 획득과 현실생활에서의 괴리를 결혼이주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동이주자가 한국사회로부터 '외부적 배제'를 받고 있다면 결혼이주자는 '내부적 배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결혼이주자 집단의 주요한 특징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의 아내', '한국아이의 엄마' 등 한국가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재생산적 시민의 차원에서 포섭하고자 하는 노력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에서 이주한 결혼한 여성들의 주체적 기대 및 행위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농촌에 거주하고', '이주를 위한 결혼' 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가장 부각되어 왔다. 비록 국제결혼이 처음에 농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많은 '동남아 여성'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결혼이주 여성중 72.1%가 도시지역(동지역)에 살고 있다.[1] 이는 국제결혼이 농촌에서 이루어지던 것으로 부터 도시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상당수 연구들은 이들의 결혼을 '이주를 위한 결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결혼을 그렇지 못한 결혼이라고 보는 편견에 기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했고 현재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방식과 이주동기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가족을 형성하고 동시에 사회와 접촉하는 개인으로 보고자 한다. 즉 '위장결혼'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의 경험의 소유자로 보려는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행위를 '주로' 도구적·수동적·강제된 존재로 표상하는 경향에 맞서 "이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며, 결혼을 통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다(최종렬, 2009).

결국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은 크게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의 일상경험에 대해 '가족'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과 '취업'이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도 '결혼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여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기대와 욕구 및 대응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적인 개인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필자는 다양한 국가, 지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중

1)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 출신 여성에 주목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가장 먼저 한국에 유입한 이주여성들이며 지금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두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등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교류의 활성화의 맥락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 여성 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주시기와 증가 시기가 조금 상이하지만 현재 서로 비슷한 규모의 숫자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집단은 같은 국가에서 온 다른 민족 집단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2] 집단이다. 한족은 중국의 주요민족이고 조선족은 소수민족중의 한 민족이다.

이 여성들이 동일한 중국이라는 국가출신으로 인해 공통점도 갖고 있고 또한 다른 민족으로서 차이점도 갖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공통점도 있지만 민족차원에서는 조선족은 '한민족'과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민족' 차원에서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한족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중적인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출신의 조선족과 한족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에도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영역에 집중하며, 이 두 영역을 불가분리적인 요소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제기 하고자 한다.

---

2) 한족과 조선족의 차이는 중국내에서는 부동한 민족이지만 이는 인종적인 차이가 아니라 언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종족성을 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 개념은 이런 언어, 문화적 차이를 가진 한족과 조선족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사용하는 것이다.

1) 가족생활 영역

가족생활영역에서 조선족 여성은 '한국남편'으로부터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 받는다고 한다. 즉 경제적 격차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조선족 여성의 해석방식은 '경제적 격차'에 스스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족과 조선족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의 성역할이 평등한 사회적 경험이 많다. 그러나 다른 민족 집단으로서 가족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몇 가지 중요한 제기하고자 한다.

가설 1: '경제적 격차'로 인한 한국가족의 차별에 대한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부장적 분위기' 에 대한 성역할 평등 의식이 조선족과 한족 여성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경제활동 영역

경제활동은 가족생활에 비해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중국에서 민족 별로 가족생활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치, 경제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공통된 체제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을 때 비슷한 인식체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설 1: 민족에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설 2: 조선족과 한족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경제활동 함에 있어서 종사하는 직종이 다를 것이다.
가설 3: 경제활동 공간에서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이 민족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자원

1) 선행연구검토

결혼이주여성의 일상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해가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기존연구는 “동화주의” 접근방식과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로 대립되고 있다.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는 현재 이주자들을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지만 이주자 특성에 관해 논의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단일민족혈통” 중심의 한국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기존한국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도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한 축으로서 이것은 이주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민정체성에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시민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 지위의 획득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한국남성의 "배우자"지위에 위치지어지면서 여성들의 주체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황정미, 2011; 김은실 2004).

결혼이주자여성은 법적 지위 획득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밖에 또 한국사회에서 정착, 활동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및 일상적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대부분은 ‘적응연구’로 다뤄지고 있었고 이는 ‘동화주의 관점’으로 이주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즉 기존연구 중 정착과정에 대한 이주자의 주체적 관점을 따르면서 시민권 논의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조선족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면서 ‘도망간 아내’, ‘위장결혼’ 등 한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 및 조선족여

성들의 결혼생활 부적응 및 한국인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 사례의 급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로 인식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파괴를 막으려는 시도로부터 진행되는 연구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적응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일상경험을 '부적응'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① 적응연구: '동화주의 접근'

중국조선족여성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가 초기 적응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같은 혈통"으로 이상적인 결혼으로 간주되었던 이들의 국제결혼은 갈등으로 인한 "파혼"이 급증하면서 "한국가족의 위기"로 인식 됨에 따라서 조선족 여성들을 한국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 조선족여성에 관한 연구의 시작과 함께 조선족여성 이외의 다른 출신의 여성들이 결혼이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조선족 이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몽골, 중아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의 여성들이 급증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연구는 적응에 관한 연구 이외에 다양한 접근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자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구관점, 연구대상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초기연구와 마찬가지로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결혼이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도 급증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등 국가차원의 관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기에 시작된 연구를 중심으로 "동화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기존의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잘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

구에서 비롯된다. 잘 적응시키는 것이 “동화주의”라기보다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이해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인 남편과 가족 나아가 한국사회가 이주자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주자를 한국사회에 통합해야 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문화적, 사회적 등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적응실태”조사연구를 하는데 보통 부부문제, 가족 불화, 사회 부적응, 사회 차별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들의 유입배경 및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설명하여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적응’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것은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경험’을 통해 적응방식 및 유형에 대해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한 원인 즉 ’한국사회가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및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결책으로 ’법적 지위 획득 개선’, ’경제적 지원’ 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정현욱, 1999; 강유진, 1999; 최금해, 2005; 최금해, 2007).

적응과정의 가족 내 갈등, 부부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으로 이루어진 부부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위기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탐구하려고 한다(김숙자 1999; 신영화, 2002; 김희주, 2007). 그리고 초기의 이주여성들이 저학력의 소유자가 많고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고학력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의 적응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하여 상응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거나 다문화의 길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최금해, 2010.)

그런데 법적 지위 획득과정의 어려움 때문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여성들이 소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가족구성원

및 기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② 특성 연구 : '주체적 관점 접근'

기존의 "동화주의"적 접근방식을 비판하는 연구는 이주자를 주체로 보는 입장 취하면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집단적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이 서로 다른 국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소통, 취직, 사회적 자본, 만족도 등 면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하는 논문도 있다(최금해, 2010; 정혜영, 2010;김현미, 2008; 설동훈, 2005; 정기선, 2008). 이것은 이들을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한발 나아가서 기존의 한국사회가 이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보는 연구 중에서 출신별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중국출신의 한족과 조선족은 동일한 국가에서 온 이유로 같은 집단으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민족적 차원을 간과한 것이다. 즉 이 두 집단에 대한 차이과 공통점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은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고 이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족여성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극히 적다. 이것은 초기 조선족여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남아 여성에 대한 연구로 흐름이 바뀌면서 한족여성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 연관 된다. 특히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연구의 범주에 속하면서 조선족 연구의 한 범주로 파악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족'연구와 '결혼이민자'연구는 조선족과 동남아출신에 대한 연구가 주요한 내용이므로 한족여성은 현재 소외되고 있다.

조선족 결혼이주 연구는 '조선족'연구의 범주에서 독립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노동이주'와 함께 '이주연구' 범주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한족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소수이다. 특히

소수의 연구에서 중국출신을 그룹별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들이 중국출신이지만 서로 다른 수요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다양성이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서운석(2008)의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하여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의 인구학적 속성, 가족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국 한족여성이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다는 등의 중요한 발견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시 만족도를 가족생활영역에 국한시키고 있다.

중국출신인 한족과 조선족은 한국사회로 가장 먼저 이주한 집단이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조선족여성의 결혼이주를 뒤이어 한족여성들의 결혼이주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한중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형성과 더불어 일상생활세계에서 두 국가를 넘나드는 이주자의 증가와 함께 볼 수 있다.[3] 이와 같은 거시적 배경에서 시작된 결

3)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중수교시점은 대외개방은 전방위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이었다. (이학규,강경훈 공저 2005) 한국경제는1992년만해도 미국(23.0%), 일본(19.6%)의 교역량이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중국의 교역량은 4.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한중교역량은 35배가량 커져 중국은 20.4%로 일본(10.0%),

미국(9.3%)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 위치에 올라섰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제4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출처: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06321 시민일보

한중 양국 경제교류와 함께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양국 간 방문자 수는 13만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00만 명에 달하여 4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66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1992년 수교 당시 4000여명에서 수교 후에는 급격히 늘어나 2010년 약 6만3000여명으로 증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약 1천182명에 불과하던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2010년 약 5만8000명으로 50 배 가량 급증하여 각자 자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2011년 재중 한국 유학생은 6만7000명, 재한 중국 유학생 6만2000여명으로 추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의 비중은 68.9%나 되

혼이주는 단순한 제3세계의 가난한 여성이 한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남성과의 결합이라는 형태로만 설명 될 수 없다. 노동이주로 온 여성이 다시 결혼이주자로 전환되거나,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으로 말미암아 유학생, 기업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국가를 넘어서 만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이런 상황은 가속화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경제, 문화 등 교류 속에서 인구이동이 일고 있는 맥락으로부터 가족생활과 경제영역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을 함께 보려고 한다.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영역에만 있는 '존재'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경제활동 영역도 함께 보려고 한다. 특히 경제활동은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한국사회와 직접 접촉하는 공간이다. 가족생활영역과 경제활동영역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지만 이주여성들이 두 영역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존에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가족생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고, 취업활동에 대한 연구는 적은데 보통 이럴 경우 '노동이주'의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중 하나인 '이주를 위한 결혼'[4]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주'를 위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이미지는 현재 '위장결혼'이 아닌 삶을 사는 여성들을 이해함에 있어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여성들의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한국 가족 및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기대가 어떤 지점에서 일치하고 또 충돌하는지 그리고

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821000131 아주경제

4) 국가 간 노동이동에 있어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의 주역으로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그리고 혼인이주 여성들이 주목 받고 있다고 한다(이혜경, 2005).

그들의 대응방식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민족적 차이를 주목하는 연구로서 기존의 '주체적 관점'을 따라 일상세계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본 연구는 위에서의 선행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세계경험을 연구를 '적응'의 관점을 벗어나 '특성'연구에 기초한 '주체적 관점'과 이주자의 '시민권'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① 시민권 관점

이런 이주현상이 보편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 시민권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시민권은 단순히 권리 개념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컸고, 시민권이 담고 있는 가치나 이념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장미경, 2001).

결혼이주는 한국사회 시민권 연구에서 중요한 현상이다. 즉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이념이 강했고 '국민'[5]이 되는 전제조건은 '한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가족 내에 서로 다른 민족, 국가 출신의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 결혼이주자는 가족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등 다양한 공적인 영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차원의 차별과 일상적인 생활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

5) 현재 국민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적으로 근대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박명규, 2009).

위와 같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받은 경험을 '적응'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권 차원의 관점으로 주목해야 한다. 그럼 시민권의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논의를 따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은 시민권의 개념에 또 다른 의미들을 추가하여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테일러는 욕구(need)의 관점에서 시민권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는데, 즉 시민권이란 단순한 권리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배분과 관련된 권력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시민권의 권리개념에서 좀 더 역동적이고 분화된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Taylor, 1990: 136-147; 장미경 2001에서 재인용).

시민권 개념은 법, 제도적 차원의 포섭과 배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적 차원의 포섭과 배제가 거시적인 틀이라면 일상생활세계에서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시민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시민권의 소재를 어디로 보느냐와 무관하게 시민권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견지에서 정의하는 반면, 일부 사회과학적 논의에서는 소속의 실질적 또는 내용적 측면으로써 시민권을 정의한다. 그리하여 시민권을 참여와 연대의 경험, 아이덴티티의 공유와 동일시한다(이철우, 2004).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세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시민권을 공동체생활에서의 '소속의 실질적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② 주체적 관점

이 관점은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이 일상세계 즉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영역에서 겪는 기대와 욕구의 실현과 좌절 및 대응방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왜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이다.

주체적 관점은 이주민들이 이주라는 사회적 과정에서 어떻게 조건

화되며 이러한 구성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빠레나스, 2001).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적 영역인 가족생활과 공적 영역인 경제활동에서 한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 여성들이 마주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규범적 문화에 의해 영향 받고 대응을 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을 가족영역에서만 중요한 존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주체적인 욕구를 살피고 현실에서 선택가능성이 어떤 현상으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주체는 개인의 의지와 다른 것이다. 주체는 이들 존재의 의미를 구성하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이 개념에서는 행위자의 역할이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 관점에서 행위자는 주체를 구성하는 구조에 의해 제한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로 조망된다(빠레나스, 2001).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영역에서 마주하는 한국사회의 규범적 가치 및 문화는 이 여성들의 기대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또 좌절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주체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가치, 규범 등 환경과 더불어 여성들이 선택하는 대응방식을 살펴봐야 된다.

본 연구에서 빠레나스의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사용한 네 가지 차원의 분석을 참조하여 가족과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부분인 가족생활과 경제활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적인 틀은 일상생활세계의 경험을 설명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분석할 것이며, 이주자공동체는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제3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국제결혼이 한국사회 전체결혼의 10%를 차지하고, 국제결혼의 80%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다. 그 중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자 집단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6]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바로 중국조선족과 한족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다. 중국출신 중 여성에 주목하는 것은 이주숫자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도 있지만 '남성'들과 접근가능한 방식을 못 찾은 것도 있다.

여성들이 숫자가 많은 것은 필자의 입장에서 친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용이할 수 있었고 또 '다문화센터'와 같은 곳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논문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남성과 비교를 통한 연구가 아니므로 기존의 '젠더'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중국 출신의 '여성'을 통해 '민족'적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주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 출신의 여성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자 중 제일 큰 집단이 중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자의 첫 시작을 알리는 집단이고 그 뒤로 중국한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결혼의 형식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사람들은 법적 지위의 획득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획득할 수는

---

6) 2011년까지 전체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에 달했고 그 중 여성은 123,093명이고 그중 중국 출신 여성은 55,488명이다. 그 외 혼인귀화자를 고려하면 전체 결혼이주자는 211,488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은 188,580명이며 중국여성은 106,705명이다. 결혼이주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중 중국 출신 여성은 전체 여성의 절반을 넘는다. 중국 출신은 또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족 여성은 53,159명이고 조선족여성은 53,546명이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2011년 외국인 주민현황.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민권 논의가 이주자의 법적 지위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노동이주와 다르게 법적 지위의 획득이 가능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에서 겪는 일상경험을 시민권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적응연구'의 틀에서 이들의 경험을 한국사회에서의 '부적응', '사회문제'로 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부적응'일 아니라 이들의 '기대'가 가족, 경제 등 영역의 구조적 환경과 마주할 때 어떤 것이 실현되고 어떤 것이 좌절되는지 또 이들의 대응방식이 무엇인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이주여성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 혹은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는 서로 관련성이 크다. 즉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는 이주 당시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이지, 이주 한 뒤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를 했다고 해서 가족영역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이주를 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서만 활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를 위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결혼' 하는 것과 '돈 벌기 위해' 오는 것을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결혼을 '비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그 중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에 기초하려고 한다.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의 목적은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정(또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 분

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Strauss&Corbin, 1998; John W. Creswell, 2007, 재인용).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 왔으며 이론의 개발은 실천을 설명하는 것을 돕거나 후속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 이론 개발이 '규격품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해 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에서 창출되었거나 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관점에 의해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론)을 창출하는 질적 연구설계다 (Strauss&Corbin, 1998; John W. Creswell, 2007, 재인용).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여성들과 심층면접을 하는 것을 통해 주관적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시민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성과정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는지를 풍부한 일상생활세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스노우-샘플링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였고 한족여성 9명, 조선족 여성 6명 등 총 15명이다. 그 외 그룹면담으로 4명을 인터뷰 했지만, 인터뷰하는 도중에야 이들은 귀화한 조선족 남성과 중국에서 결혼해서 온 한족여성임을 알게 되었다.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만나다보니 구성상 배제해야 될 수밖에 없다. 면접언어사용은 참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을 했다. 이 과정에 중국 한족은 대부분 중국어로 진행했고 조선족 여성은 일부분은 고향사투리, 일부분은 표준적인 한국어를 구사했다. 또 2명의 한족여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어에 자신을 보이는 상황이라 한국어로 면접을 진행한 것도 있다.

면접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이다. 면접시간 외에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과정에서 녹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담화 등을 통해 필자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받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터

뷰 시작할 때보다 녹음 하지 않는 시간에 더욱 깊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많이 해주었다. 필자의 경험의 부족과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공부가 적었던 탓에 초기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다.

인터뷰는 2011년 4월에 시작하여 2012년 9월 까지 총 14 케이스를 채택했고 이들은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인터뷰는 당일 참여자의 집으로 직접 초대받아서 갔거나 집 근처 혹은 직장 근처 까페에서 만났다.

이들 중 노동이주로 먼저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는 총 2건이다. 조선족과 한족 각각 한명씩이다. 여기서 노동이주는 먼저 경제활동여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을 가리키고자 한다. 즉 노무직이거나 전문직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 형식적으로는 결혼이주자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한국인 남편의 거부로 인해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일하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된 다른 한국인 남편과 다시 정식으로 결혼절차를 밟은 조선족 여성 1케이스가 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분포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해준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조선족 여성 기본정보>

	결 혼 년 도	현재 연령대	고향	자녀 수	인터뷰 일시
C-1	1996	30대 후반	길림성 길림시	2	2012.04.18
C-2	1997	40대 중반	흑룡강성 상지시	2	2012.04.20
C-3	2011	50대 중반	길림성 왕청현	0	2012.04.24
C-4	2001	50대 중반	길림성 왕청현	0	2012.04.26
C-5	2012	20대 중반	길림성 연길시	0	2012.09.08
C-6	1999	30대 중반	길림성 연길시	1	2010.09.13

<표 2: 한족여성 기본정보>

	결 혼 년 도	현재 연령대	고향	자 녀 수	인터뷰 일시
H-1	2003	30대 초반	흑룡강성 계서시	1	2011.04
H-2	2004	30대 중반	하북성 한단시	2	2011.04
H-3	2005	30대 중반	길림성 연길시	2	2011.05.13
H-4	2008	20대 후반	사천성 면양시	2	2011.05.20
H-5	2001	30대 중반	복건성 복주시	2	2011.06
H-6	2007	30대 초반	중경시	0	2012.04.17
H-7	2009	40대 후반	료녕성 단동시	0	2012.04.23
H-8	2003	30대 후반	강소성 남경시	1	2012.09.20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법-가족-시장-이주자공동체 라는 4개 영역을 제시한 파레나스의 연구 틀을 참조한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을 설명하였고 2장에서 국제결혼의 변화추이와 함께 법제도를 다루게 될 것이고 가족과 시장 즉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은 3장 및 4장에서 민족별로 다루게 될 것이다. 공동체영역은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설명할 때 연관시켜 다룰 것이다. 5장에서는 두 민족 간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법-가족-시장-이주자공동체 라는 네 개 영역 중에서 가족과 시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법적 영역은 사회기반을 구성하는 배경으로 접근하며 이주자공동체는 가족과 시장의 영역에 영향 미치는 부분을 조명하고자 한다.

법과 제도는 국제결혼을 규정 짓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다. 그 중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자격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법적 의거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최근에 시행되는 법인데 이는 국제결혼가정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이다. 법제도의 내용과 비판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성들의 대응방식을 볼 수 있다.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취업은 여성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이고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 다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가족생활영역과 경제활동영역을 연관 지어 봐야 된다. 각 영역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두 영역 간의 연관도 중요시해야만 개인들의 주체적인 욕구와 현실의 괴리를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다. 공동체영역은 특히 이주자공동체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 국제결혼의 법・제도적 변화

이 장에서는 90년대부터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와 관련되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김승권 외, 2010).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련되는 법률로서 이는 '국민국가에 입장할 권리'(황정미, 2011)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여성들의 실제 정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에 정착과정에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생활 중심적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하기 이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의 결혼이주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중국출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주의 맥락을 살피면서 여성들의 이주방식,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거주지의 특징, 학력 등 중요한 속성과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이주의 맥락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여성들의 일상경험세계에서 기대와 좌절 및 대응방식을 '적응'관점이 아닌, '이주여성들을 주체로 보는 관점'으로 일상세계의 경험을 분석해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관련된 법률을 설명함으로써 법・제도적인 틀이 여성들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여성들은 또한 어떤 대응방식을 취하는지 볼 수 있다.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는 본 연구에서

일상세계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전제조건으로 다루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제1절: 국제결혼의 변화 추이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2009년에 이루어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김승권 외, 2010)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외 2012년 8월의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분석'을 사용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법적 자격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은 220,687명에 달하며 그 출신 국가로는 중국이 54.9%로 가장 많다. 동남아는 31.8%, 일본 5.2% 등 순서이고 여성이 89.2%인 196,78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7] 중국 출신은 통계집계방식에서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선족과 한족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은 조선족이고, 기타 중국인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소수민족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인은 한족으로 집계된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7) 출처: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분석'. 2012.08.08

<표 3> 한국계중국인과 중국인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총계

	전체 (국제결혼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전체	220,687	144,214	76,473
한국계 중국인	66,410	29,184	37,226
중국인	54,670	34,906	19,764

출처: 행정안전부 2012.08.08

1) 이주방식과 변화

국제결혼은 두 개의 부동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를 만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가족친지네트워크, 혹은 직접적인 소개자가 없이 만나 알게 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여성들 중 중개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한 국가는 캄보디아(84.1%)와 베트남(66.4%)이고 가족, 친척의 소개의 방식이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조선족(40.1%)이며 한족은 친구, 동료의 소개(31.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학력층일수록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소개받았고, 고학력층일수록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김승권 외, 2010).

한국으로의 이주에 있어서 같은 중국 출신일지라도 민족 집단 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중국 내 조선족사회는 개혁개방 이후 국내의 대도시, 발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과의 '친척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족사회는 국내에서의

8)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으로의 이주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① 조선족의 이주방식

조선족은 90년대 전후 한국으로 친척방문이 잦아지면서 한국과 조선족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결혼을 소개하는 경우도 출현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 된 이후에는 한국 내에서의 인적네트워크가 쌓이면서 '잘 사는 나라'의 '같은 민족' 간의 결혼이라는 이념아래 급속 진행되었다.

결혼한 시기를 살펴보면 조선족은 90년대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 초중반까지 급증했고 오히려 최근에는 증가폭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법제도와 관계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7년도에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조선족은 노동이주가 용이하게 되었고, 결혼이주는 한국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 셈이 된 것이다. 지금 결혼이주하는 조선족여성은 내부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단지 '잘 사는 고국으로 시집' 가기 위한 결혼이 이루어지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② 한족의 이주방식

한족은 조선족의 이주가 나타난 뒤에 한국으로 이주가 시작되었고 친구, 동료의 소개로 가장 많이 오지만 브로커나 가족의 소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한중 경제, 문화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양국에서 유학, 취직 등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급증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족들은 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했고 특히 최근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의 인구이동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하는 남성들이 선호가 예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족은 지역분포가 넓고 각 지역마다 경제, 사회 특징들이 차이가

많다. 90년대 전면개방의 조류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대도시로 향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국 여성들의 이주 배경 및 원인

즉 '단일민족국가'의 이념이 강했던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이념'적인 변화보다는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초기 '조선족'여성에 대한 '위장결혼', '도망간 아내'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제가능'한 여성을 선호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양국사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접촉기회가 증가하고 국제결혼도 늘어나는 것도 한족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나은 지역 혹은 국가' 로 이주해가는 시대적 맥락에서 한국인과의 결혼과 및 이주를 바라봐야 한다. 국내에서 인구이동이 대도시, 연해도시 등 발전한 지역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발달한 외국으로 이주해가는 추세의 한 흐름이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정되는 과정에 한중 두 국가의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78년 시장개방 이래 한중수교 쯤부터 전면개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외국으로의 이주 및 국내 인구이동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교류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삶에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거주지 및 가구소득

① 거주지

결혼이주여성의 이미지는 '농촌'에 사는 외국인 여성이 전형적이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장가 못 간' 남성 만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

이 아니다. 물론 90년대 이후 시작된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과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 곧바로 도시의 남성들도 국제결혼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도시에 사는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세에 처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유학, 취직 등 아세아 지역 간의 이주가 다양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세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출신국 별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72.1%가 도시지역(동지역)에 살고 27.9%가 농촌(읍면)지역에 살고 있다.[9]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의 도시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존 한국사회의 도시밀집형 인구분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이주자는 70.3%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는 기존 농촌에서 국제결혼이 시작된 90년대 초반 뒤 도시에서도 많은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중국 출신의 도시거주자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70.9%(조선족), 80.5%(한족)가 도시에 살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출신은 53.2%와 54.1% 밖에 되지 않는다.[10] 즉 중국 출신은 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동남아 등 국가출신은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②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다. 즉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다.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소득 수준이 비슷하지만 500만 이상으로 가면 한족들이 조금 더 많다.[11] 확실히 결혼이

9)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자 전체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한 남성들과의 결합이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소득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한국에서 배우자를 얻기 힘든 저소득계층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신부'를 맞이하는 현상과 관계된다. 특히 이런 경우 브로커나 지인 통해서 여성이 결혼이주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문제, 가출하는 신부, 위장결혼, 이혼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이주를 하여도 위와 같은 '가족'이 파탄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결혼이주여성들도 쉽게 '위장결혼'을 감행한 여성과 함께 '이주를 위해 결혼'을 했다고 보는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가족을 형성하고 경제활동도 하려고 하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결혼이주'라고 보기 힘들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기존의 '이상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오는 편견에 가깝다.

3) 가족생활영역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는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난관이다. 조선족 여성은 '민족'적인 동질성으로 인해 언어와 문화면에서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기타 출신은 '민족과 국가'가 한국과 전부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자로서 언어의 어려움은 정착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난제가 된다. 하지만 언어의 문제로만 모든 것을 환원시켜 설명할 수는 없다. 가족생활에서 부딪히는 기존 한국사회의 문화와 그 속에서의 기대와 대응방식은 '민족'적 차원에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 '민족'과 관련된 문화적 부분과 '국가'와 관련된 계급적인 부분을 동시에 봐야 된다.

먼저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를 통한 전체적인 가족구성 및 역할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① 혼인유형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유형을 보면 '부부 모두 초혼'(65.0%), '부부 모두 재혼'(18.1%), '부인초혼-남편재혼'(9.3%), '부인재혼-남편초혼'(7.6%)등 순이고 현재 혼인상태는 '유배우'(96.0%)로 가장 많고, 이혼(3.2%)를 차지하고 있다.[12)]

② 이혼율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7%이고 이는 여성의 평균 이혼율과 같다. 이들은 집단별로 다르지만 중국조선족은 평균 7.6%이고 여성은 8.0%에 달하고 있으며, 한족은 두 번째로 많은데 평균 3.9%이고 여성은 3.7%에 달하고 있다.[13)] 이것은 한국인 내부에서의 2005년 이혼율이 평균 4.2%(김승권 외, 2010)인 것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참조하고 있는 실태조사[14)]는 현지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중 55.9%인 7만 3천 여가구에 대한 설문지 조사 결과로서 전체 결혼이주의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 출신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이주한 시간이 가장 긴 출신인 것과 관계도 되지만, 초기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한 '한국남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입국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또 '위장결혼'으로 온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여성들 즉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비율은 실제로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출신의 이혼율이 높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최근의 고학력 여성들의 이주도 존재

12)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대부분은 친인척 소개를 통해 이주한 여성이 많다.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은 흔히 '노동이주'의 한 범주로 여기는 '이주를 위한 결혼'이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결혼 그리고 취직을 어느 하나를 위해서 이주를 감행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주를 위해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③관계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고 전체 '한국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이다(김승권, 2010). 가족관계는 가족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로부터 오는 만족도이다. 즉 아내로서 배우자와의 관계, 엄마로서 자녀와의 관계, 며느리로서 시부모와의 관계, 및 기타 친지가족과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관계별 만족도는 배우자(74.8%), 자녀(88.1%), 시부모(64.8%) 등 이다.[15] 이것은 주관적인 만족도로서 출신국가 별로 보면 중국 출신 여성은 모든 관계에서 전체 이주여성의 평균값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특별한 점이 눈에 띄이지는 않는다. 설문조사에서 '가족관계'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따로 없이 총체적인 주관적 느낌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만족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문제, 시부모로부터 받는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 및 갈등 등 문제는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인터뷰 분석을 다룬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④ 자녀 양육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역할에서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양육은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를 보면 평균 0.9명이고

15)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출신은 유일하게 평균보다 낮은 조선족(0.8명), 한족(0.6명)이다[16]. 중국 출신은 최근에 급증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의 출신자보다 적은 자녀수를 두었음은 그 이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승권 외, 2010).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0명인 비율이 평균(38.3%)보다 훨씬 높은 것이 중국출신(조선족 44.6%, 한족 51.3%)이다. 이것은 연령과도 관계된다. 중국출신이 재혼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은 만큼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고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녀양육의 부분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생물학적, 현실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봐도 기타 국가 출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명의 자녀를 둔 가족구조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녀양육의 부담과도 연관된다. 자녀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은 출신국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중국출신은 학원비 마련(조선족 36.1%, 27.8%)이 기타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기타 출신국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교육비 부담 관련의 이슈와 관련되며 이주여성도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4) 경제활동영역

① 취업률

결혼이주여성의 입국전 취업경험률을 보면 평균이 75.3%이지만, 현재 취업상황을 보면 (현재 일하고 있다+일한 적 있다) 평균이 62% 정도이다.[17] 이것은 전체적으로 취업활동이 본 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와서 적어졌음을 말한다.

한국으로 입국 전에는 본국에서의 취업경험률이 대부분 높다. 베

16)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거의 80% 좌우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이주 전 조선족과 한족은 거의 비슷한 취업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18]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가지는 언어, 문화적 우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외에 조선족 내부의 네트워크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한족 여성은 언어, 문화적으로 기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한국문화에 서투르지만 취업경험이 많은 것은 한국에서의 중국관련 업무의 증가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조선족들을 언어, 문화적 통역매개로 취직할 수 있는 것과 관련 된다.

② 종사 직종

본 연구에서 참조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이주자의 직종을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가사노무, 기타 단순노무, 사무,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로 집계했다.

본국에서의 종사한 직업과 한국으로 이주한 뒤 직종을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업 판매 및 단순노무 직종이 이주 전후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사무직, 전문가 등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출신 중심으로 보면 입국 전 본 국에서 서비스직종 종사한 비율이 조선족은 25.7%이고 한족은 20.5%를 차지하지만 입국뒤 각각 41.5%, 29.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9]

조선족은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추세를 보이고 베트남은 기타 단순노무(가사제외)직종(37.8%)에 집중되어 있다. 한족의 경우도 서비스업과 기타 단순노무에 분포된 케이스가 많다. 필리핀 출신은 전문가 업종(37.8%)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주자들은 본국 전문직 직종 종사 비율이 감소를 보인다.

---

18)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여성들이 서비스, 가사, 단순노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된 특징으로 볼 때 이는 한국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속하는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소득은 평균 50만부터 200만 사이가 가장 많다. 즉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500만 이상의 고소득은 매우 적고 필리핀은 기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20]

③ 경제활동 과정의 어려움

결혼이주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느끼는 어려움은 보편적으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21.6%)을 가장 크게 느낀다. 조선족은 언어,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언어 어려움'(5.1%)을 적게 느끼지만 반대로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15.8%) 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 한족은 언어적 어려움(34.0%) 이외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11.3%)에서 조선족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출신에 비해 '중국인'으로서 차별당하는 경험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차별은 제도적인 차별도 있지만, 이 설문 조사는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차별은 곧 준거집단에 대한 소외감이다. 조선족은 한국인을 준거집단으로 삼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반응이 가장 강렬하다. 또 중국이 한국에서의 이미지와 위치와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대신 중국 한족은 주변 조선족과의 연결망 속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민족'차원에서 받는 혜택에 대한 소외감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분석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④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경제활동은 가족생활과 다른 영역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20)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해 이주여성들은 '집안일과 병행하기 어려움'에서 평균 4.5% 정도가 선택했다. 일본이 그중에서 가장 높다(10.7%). 그렇다고 이주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의 난제에 마주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도 심각하다. 이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자녀양육 때문'(49.1%)이 압도적으로 기타 이유에 비해 높고 모든 출신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21] 이것은 자녀 양육의 부담이 한국의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과중함을 말해준다.

결혼이주여성을 보통 가족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존재로 접근하는데 사실 이것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기대사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라고 해서 결혼생활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과 취업은 누구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든 두 가지를 다 바라든 이것은 개인의 욕구이자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봐야 한다.

향후 취업 희망률은 평균 85.7% 로서 상당히 높다. 다만 북미.호주. 서유럽이 44.9%로서 상당히 낮은 것 이외 기타 출신 국가들은 대부분 취업하기를 바란다.[22] 즉 이주여성들이 가족내에서의 역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함으로 보여준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실현의 차원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5) 기타 사회영역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지만 이 외의 사회참여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주자는 이주자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 이주한 국

21)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에서 개인으로 사회참여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 시민권 영역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사회참여 부분이다. 즉 사회공동체와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족영역 제외한 모임에 저조한 편이다.

① 모임 참여률

사회활동 참여를 보면 '참석모임 전혀없음'(조선족 13.2%, 한족 14.6%, 전체 평균 11.8%)은 중국 출신들이 가장 높은 편이다. 모임 중에서는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여성의 '본인 가족'과 '배우자의 가족모임'을 보면 조선족은 각각 77%와 86.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평균인 65.0%와 88.6%에 비해 보면 '본인 가족 모임'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족은 각각 60.7%와 85.8%로 '본인 가족' 보다 '배우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다.[23] 이것은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한 친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과 관계된다.

한국에 모국가족의 거주 상황을 보면 조선족은 78.2%가 있다고 답한 것이 기타 이주자에 비해 특별히 높다.[24] 이것은 결혼이주자의 가족으로서 한국에 방문한 경우 외에 기타 고용허가제, 재외동포법 등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결혼이주자와 별도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 주민 모임'과 같은 가족을 제외한 모임에서는 중국출신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이 각각 64.4%와 28.8% 에 비해 볼 때, 조선족은 48.4%, 28.8%로 특히 '모국인 친구 모임'에 저조하다. 한족은 56.7%와 16.1%로 '지역모임'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25]

---

23)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출신이 가족모임 이외 모임에 많이 참석 못하는 이유는 취업 현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국가에 비해 현재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만으로 여유의 시간과 정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도 관계된다.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모국인 모임'과 '지역 주민 모임'이 더 활성화 된 상태이고 또 이들의 낮은 취업률과도 관계된다.

② 투표경험률

사회참여를 보는 중요한 지표가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행사이다. 즉 투표경험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귀화자의 투표 경험률을 보면 조선족(62.3%), 필리핀(66.7%), 일본(66.8%) 지역이 평균(56.7%)보다 높은 편이고 한족(49.9%)은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고 기타 지역은 출신은 더욱 저조하다. 영주권자의 경우도 귀화자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26)

조선족과 한족은 중국이라는 같은 정치공동체에서 살았고, 전부 직접 투표경험이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그 격차가 생겼다. 조선족들이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주자공동체와 주변 한국지인들과의 상호작용과 갈라놓을 수 없다.

제2절: 국적법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친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결혼절차를 밟고, 상응한 비자(국민의 배우자)자격을 받아서 입국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

26)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는 동안 국적법에 의거해 규정된 절차를 거쳐 한국영주권 혹은 한국국적을 받게 된다.

국제결혼과 이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여성들을 제외하면 한국으로 경제활동, 학업 등 목적으로 먼저 노동이주, 유학 등 방식으로 이주를 했다가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와 한국인 남성이 기타 국가로 이주했다가 현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여성이 남성을 따라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국적법'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영주권 혹은 국적 취득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1997년 법률 전면 개정 이전에는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정착하는 경우가 적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규제도 따로 없었다. 즉 90년대 초중반에 이주한 여성의 경우 법적 지위의 획득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곧 90년대 중, 후 반부터 조선족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위장결혼'과 같은 이주방식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한국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도 엄하게 변했다. 특히 최근의 법적 절차는 '한국인 남편'이 중요한 담보자의 역할로 되고, 수시로 전화, 방문 등 방식으로 '위장결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법률의 개정은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핵심적이다. 이로 인해 '위장결혼'이 아닌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잠재적인 위장 결혼여성'으로 낙인을 찍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국적법 제1조에서 밝히듯이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법률조항 중 제6조는 외국인이 귀화와 관련 된 것이다. 그 중 2항은 결혼이민과 관련된 것인데 원문은 아래와 같다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원문의 내용에서 “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주요한 경우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때는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국적법은 1997년 12월 13일에 전부개정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처음 만들어진 법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새로 바뀐 국적법은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2항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즉 법이 바뀐 것은 바로 90년대부터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생긴 것과 관련된다. 더 이상 “처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은 사회현실에 부합되지 못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 거주에 대한 조건이 생겨났다. 이것은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조선족아내가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도망가는 사례가 이슈가 되면서부터 국적 취득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즉 이 법이 생기기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은 국적취득 절차가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 졌다. 본 연구 참여자 중 C-1은 자신이 90년대 중반에 이주했을 당시 국적 취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해주었다.

C-1: 그때는 국적이 한달도 , 일주일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집으로 딱 오더라고.
그때는 중국국적 포기도 없고, 중국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 이러잖아, 그 띠는 우리가 포기도 없었어. 그래서 중국국적이 2000년도 초반에 , 동생 초청한다고 호구 뒤지니까 호구가 살아잇더라구, 그러면 초청이 안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포기를 했지.

1997년에 전면개정 되었던 국적법은 2004년에 결혼이민자에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최종 2008년도에 일부개정한 법인데 실제로 2004년 것과 차이가 없다. 법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새로 추가된 조항을 보면 국민 배우자와의 혼인 행위가 국민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고 한다(김영선, 2011). 이와 같은 제한은 국적 취득의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는 한국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법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국적 신청 하면 수시로 해당 관리 기구에서 자주 전화로 실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다[27]. 심지어 영주권 신청과정에도 같은 "감시"체제가 작동한다.

C-3: 야, 검사하구 시집에, 직장에 다 전화하구 진짜 잘 사나, 사나아이사나, 진짜 힘들게 했다. 말 한마디 잘 못해두 안되구, 지금두 연락 온다더라, 이번에 연장수속 일년만에 또 한다, 그때 또 물어본다더라, 그래 가짜루 사는게 많으까 그래겠지, 연잘 할 때두 어떤 사람들은 안가두 된다는데 전화 자꾸 물어봐서 시끄럽다더라, 같이 감 좋다더란 말다.

국적법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로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혼인 후 2년까지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1년을 거주한 뒤에만 체류 연장절차를 밟아 영주자격(F-5)이나 한국국적신청(간이귀화)이 가능하다. 동법의 조건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결혼 후 2년간은 부부관계가 위계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중단된 결혼이민자는 체류 연장 및

27)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이 절차에서 자신의 지인이 남편의 속옷 색상에 대한 질문 등 굴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질문을 받은 사례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의 기본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김승권 외, 2010).

> C-5: 나는 또 이렇게 국적 바꾸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조선족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국적 바꿀려면 뭔가 영 까다롭다고 하더란 말임다. 내 아는 언니 말로는 그 언니두 결혼했는데, 그 막, 일요날에 막 거기 뭐임다. 무슨 사라들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같이 사는지 막 확인하구, 그랜다 하더란 말임다. 남편 오늘 무슨 팬티 어떤 거 입었는가, 이런것도 물어보구. 그래서 내 왜 , 가짜 결혼해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막 확인한다고 하더란 말임다. 물론 그렇게 아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 내 무슨 뭐이 모자래서 그런 岐視(기시)를 받고, 뭐 국적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영주권으로 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굳이 내 뭐 국적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국영주권 혹은 국적 취득과정은 아직도 위장결혼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법적 시민권의 획득의 어려움을 비판하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적취득 규정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있다(김영성, 2011). 그러나 영주권을 선호하는 경향은 단지 법적 절차의 번거로움 뿐만은 아니다. 이주자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재 법제도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중국국적을 보류하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앞날을 대비해 많은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기본내용 및 변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결혼이주자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용어로 칭해지다가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혜경, 2009).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은 같은 해 9월 22일이다. 현재 적용되는 법은 최근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가장 큰 구별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의가 달라진 것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처음 제정된 법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가와 나 조항에서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정의다. 즉 법적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 출생 시부터 한국국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한국국적을 소지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제 되었음을 말한다. 이것은 2011년 10월 5일 시행되는 법에서 개정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보다시피 처음 법이 제정 될 때 사용하던 "출생 시"의 개념을 삭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적 귀화 혹은 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배제되는 것과 연관된다. 예를 들면 중국 조선족들의 귀화 혹은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인데, 이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혹은 한족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이미 한 상태라면 '출생시'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이므로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의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로써 다문화라는 용어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수요도 다양하고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다양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층은 다문화지원에서 핵심대상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은 저소득계층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 운영의 실제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시행하는 실무기구라고 볼 수 있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원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센터를 선정하는데, 센터운영비에서 사무실 건물 임대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없으면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종전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이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게 된다. (전형배, 2009).

각 지역센터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이해, 취업훈련, 가정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낮 시간에 행해지고 가사노동관련에 대해 가르치는 '가족중심' 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활동 등 기타 사회활동이 아닌 '가족생활'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존재로 접근하는 '문화 동화적'인 정책이다(이혜경, 2009).

언어적인 문제는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다문화센터와 같은 곳에서 무료로 운용되고 있는 언어지원은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한 이주자로서, 개인으로서 가족생활영역 이외 취업활동을 하는 것, 자녀를 가르치는 것 등 문제에서 한국어가 장벽으로 여전히 남게 된

다. 이로 인해, 취업훈련, 자녀언어교육 등 프로그램을 따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장에서 운영되는 어학원에서 배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다문화센터로 다니는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닌다기보다는 '취직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들이 답답한 가정환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큰 것이다.

취업훈련 및 알선과 같은 역할도 지원센터의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한국가족' 이외 친지네트워크가 거의 없다. 조선족과 같이 이주한 규모가 크고 이주한 역사도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단으로서 이들 이주자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직업, 가정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주자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의 인터뷰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제3장: 조선족여성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특징

제1절: 조선족 국제결혼이주 현황

조선족은 90년대 초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기 시작한 첫 번째 집단이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족 여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한국에 '친척방문'으로 오고가는 중국 조선족들의 증가와 더불어 친족네트워크를 통한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브로커가 조직화 되면서 국제결혼은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등장하면서 9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위장결혼은 '한국 바람'이 불면서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식이 당시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변형된 노동이주' 였다. 당시에는 사회파장이 컸기 때문에 조선족 여성은 '위장결혼' 이주여성의 이미지가 컸다. 실제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

고 정착해 살아가는 여성도 많았지만 이들은 '위장결혼', '도망간 아내' 등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90년대는 중국조선족사회가 중국 개혁개방의 본격화 단계에서 대도시로, 발전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때이다. 그러나 '한국바람'은 전반 조선족 사회가 중국 내의 발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의 기회에 앞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촉진시켰다. 즉 초기에 조선족 사회는 '코리안드림'에 대한 담론이 성행했던 것이다.

초기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은 사실 '민족 간 결혼'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많았다.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남성들이 '조선족 여성'과 결혼하려는 수요가 생겼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 이런 남성들은 농촌 혹은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적 지위가 한국에서 열세에 처한 남성들이 신부 감으로 '조선족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은 초기에 한국남성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 아니다. 특히 당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없었다. 조선족 사회도 금방 시장개방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때라 지금처럼 정보가 충분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부푼 기대'를 안고 올 수밖에 없었던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야 대부분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이혼', '도망가는 아내' 등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은 서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는 숫자는 지난 10년의 증가추세에 비해 완화되었다. 1990년부터 94년까지 전체 결혼건수의 3.1%, 그 뒤 95년부터 99년 사이는 18.9%가 이주했다. 이 시기 절대적 인구수는 합쳐서 전체의 20% 정도를 넘지만 급증속도는 제일 빠른 시기였다. 그 뒤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36.9%의 결혼케이스

가 있고,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41.1%가 결혼으로 이주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혼인건수의 절대 대부분이 2000년대에 결혼을 했지만 그 증가 속도는 완화되었다.[28]

최근에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세에 처한 남성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양국 간 유학, 취직 등 환경 속에서 만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조선족 사회가 '민족 내 혼인'을 강조하던 세대와 다르게 결혼도 민족, 국가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학력이 대부분 낮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중국의 전체 교육, 사회 환경과 관련되는데,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2절: 가족생활영역의 특징

1) 한국가족과의 관계 형성

1990년대에 20대인 조선족 여성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은 아주 전형적 경우이다. 당시 중국사회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들었다. 조선족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친척방문으로 다녀간 1세대 조선족 노인들과 기타 조선족들이 본 한국은 "엄청 발전한 고국"이었다. 이런 담론이 확산되고 한국바람이 불면서 조선족들은 초기에 확실히 "코리안 드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국드라마" 등 문화상품을 접촉하면서 한국은 이상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 C-1: 나랑 좀 먼 할아버지고, 우리 친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하구 좀 먼 친척이고, 그 할아버지가 한중수교 92년도였나, 그때부터 인제 한국 왔다갔다 한 거야. 그 할아버지

28)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2009 결혼이민자의 입국연도별 출신국

가 인제 내가 그때 21 22살 됐을 때, 나만 보면 시집가라, 볼 때마다 불러, 완전 노래처럼. 그래 내가 할아버지 내가 왜 시집을 가야 하냐고, 더군다나 내가 학교 나온지 얼마 안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사 하는게 고생스럽다고, 할아버지가 물론 장사해가지고 물론 돈은 좀 벌지만, 사는게 힘들다고. 한국에 가보니까 여자가 살기는 완전 좋더라,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솥이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에는 맞벌이하고 그러지만, 한국에 가면 맞벌이도 안하더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만 키우고. 할아버지가 살기 좋다. 깨끗하고, 도로 잘 돼 있고, 여자들 살림 하기 편하고, 야, 중국에서 살면 아니라고, 계속 나한테 설득시키는거지. 선보라고. 니가 가겠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해줄테니 가라고.

c-2: 중국에서 民辦教師(교사)두 했다가, 삼촌네 공장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서, 그때두 91년도 일본으로도 우리 친구 시집간 것 있고, 91년에 약팔아서 오고, 93년도부터인가, 막 이제 시집오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때는 한국 그리 오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친고모가 먼저 나보다 일년 먼저 왔어요. 결혼으로 왔어요. 고모가 사진 보내왔더라구요, 그냥 직장에서 통화계속하고 재미삼아 이야기 하다가, 한달만에 왔어요. 일년 되고 하니까, 서류 하러 다니면서 뭐가 좀 안 맞아서 다투기도 했어요. 일년 되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해서 왔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그 맘에 안들어서 여자 안 됐다 그런 것도 서류 하다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C-6: 전혀, 그냥 뭐 드라마속에서 보는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그게 다 였기 때문에, 그게 다 였고, 주위에서 들어본 이야기

가 있었지만, 아주 깊숙하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겪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특히 초반에 브로커, 친인척 소개로 이루어진 결혼이 많았고, 그 당시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잘 모르고 들어온 경우가 많다.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결혼이 한국남성들에게 타격을 준 반대로, 한국인 남성들도 조선족여성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치거나, 본인의 실제 경제수준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없이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조선족 여성들이 감당해야 될 삶은 생각보다 엄청 힘든 과정이다.

c-1: 뭘 알겟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선이란 것을 보고 그냥 뭐 .그 것도 옆에서 자기가 할아버지 힘이 컸던 것 같애. 난느 맘이 안들었고. 별로 였어요. 인물 체겪도 별로고, 자기는 내가 또내가 맘에 안들었대. 서로 그랬지, 근데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는 우리 손주 착하고 살림 잘할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 나한테는 전라도 분인데, 혼자 자수성가한 분이란 말야. 생활력이 강하다, 부지런하다. 자꾸 꼬시는 거 이찌, 그래 그냥 얼떨결에 정말로, 그니까 철이 없다는게, 그런게 철이 없는거야.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 모르고, 지금 같았으면 내 주장 확실히 하고, 할아버지 옆에서 아무리 뭐라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데, 그때는 내가 왜 그리 착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멍청하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알았다구. 결혼을 햇지.

c-6: 와서도 겪었던 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상 햇던 것보다 조건도 훨씬 안 좋고, 그랬던 거지.

90년대 이주를 하던 조선족 여성은 그 당시 농촌, 도시 등 “장가”를 못 간 사람과의 혼인으로부터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한국 남성들과의 결합이 많았다. 가족 내 남녀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중심의 사고는 “조선족”사회에서 받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보다 더욱 심각했다. 특히 90년대 브로커를 통해서 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의 지위는 가족 내에서 남편 혹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모든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은 조선족 여성의 몫이었다.

C-1: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내 생각을 이해 못해주고, 또 혼자서 오래 살다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거야. 여자 말은 거의 안들어. 신랑은 나를 굉장히 차별대우를 했거덩 나를. 내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고, 자기가나를 사온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격을 무시했으니까.
그니까 인제, 자기 바탕에 깔린게 무의식중에 깔려 있는게, 중국은 한국보다 좀 못사는 나라다. 그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자기하고 뭐가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인격으로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애들이 예를 들면, 감기 걸리고 아프면, 니 때문에, 나보고. 너무 황당한게. 자식은 혼자서 혼자 자식이 아니잖아. 나는 걔네들 아프로 감기 걸리면 내가 가슴 더 아픈 사람인데, 아프면 다 니탓. 애들이 니 때문에 감기 걸렸어. 어쨌어.

C-2: 조선족 남자도 여기 풍습 그런게 있어서 좀 그죠. 완전 중국분하고 틀리죠. 근데 뭐라고 할가. 그래도 한국이 더 심하죠. 아무래도 중국분들은 거기서 태여났기 때문에 좀 남자, 이

거는 여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집념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랑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도, 남자 말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도, 여기 오니까 남편들도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안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진짜 그거 하는데 십몇년이 걸렸어요. 작년부터 좀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이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주목 받기 힘들다. 그것은 조선족이 중국에서의 언어, 문화 등 생활방식이 “한민족”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비슷하지만 조선족은 결코 한국이 상상하는 “한민족”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조선족 집단으로서 자체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가족영역에서부터 나타난다. 한국인 남편, 한국인 가족은 이들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적 인"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사는 한국인 남성들이 대부분 서울 이외 기타지역에서 들어 온 사람이 많고 부모는 고향에 있는 경우 여성들은 “시부모”와의 접촉이 적은 편이다. 추석과 같은 중요한 명절, 기념일에 “시부모”와 만나게 된다. “시부모”는 “조선족”여성에 대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C-5: 시댁식구들은 딱히 내가 중국사람이라 해서 싫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한국 말 하니까, 가끔은 너무 한국 사람처럼 대할 때 당연하게 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면접자: 예를 들면?
C-5: 추석 문화도 다르고 하잼다. 우리 집은 추석 이렇게 아이

지내는데, 당연히, 嫁鷄隨鷄 嫁狗隨狗 (남편을 따라가길) 원할 때가 많은 것 같고.

한국가족이 조선족여성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다보니 “조선족 여성”은 “한국인 며느리”의 역할을 당연하게 요구 받게 된다. 거기다가 조선족 여성들이 이런 요구에 큰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언어, 문화적 동질감이 강조되는 역할에서는 오히려 적극 수행하는 것을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c-1: 처음에는 한 국 사람 만날 때 같은 민족이라고 느꼈지, 이질적이라고 느낀 적 없었어. 일단 대화가 되니까, 언어 소통이 되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와서 김치 같은거나 이런거 다 담아 먹었어.

c-4: 깜짝 놀라더라구, 연변에서 와서 말 못하는가 했대, 나보고, 처음 이제 우리 아저씨(남편) 친척, 형제한테 갈 때, 안 그렇네, 좋아하더란 말다, 의외로 엄청, 작은 엄마는 안 그렇네, 그러니까 (나는)위축되고 그런 건 없었다. 저네하고(한국친척들하테) 애기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나이 어려서, 어리다보단 젊어서 왔잖아, 늙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젊어서 왔으니까, 좀 뭐 할 줄 아니까, 어디가 부엌에 놔두 어정쩡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치’와 ’부엌’이다. ’민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보다는 가족 내 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 혹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 c-5: 말로는 딱히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분들이구 한데 그냥 국적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냥 중국 국적으로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뭐, 또 시부모한테는 내 아직 중국에 가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 못하고, 일단 영주권 으로 사는것도 지장이 없다고 하고.

이런 현상은 특히 브로커를 통하고 한국사회의 열세에 처한 남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최근의 현상이다. 최근 들어 고학력 조선족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세대적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90년대 국제결혼을 하던 전형적인 한국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짙었다면 현재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은 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2) 이주자 공동체와 가족생활

조선족은 한국에서 결혼이주자 이외 노동이주자, 유학생 등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용허가제 및 재외동포법 등 정책과 법규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조선족의 한국으로 노동이주가 급증했고 최근 유학생집단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중국내 친족,지인 네트워크가 한국사회에 와서 재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조선족 사회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중국거주지에서 대도시, 한국 등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기존의 친인척망은 해체를 겪으면서 경제적 발전을 위한 개인들의 이주사가 지

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면서 다시 과거의 친인척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현상인데 지난 시기 서로 흩어져 지내던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인적망이 재형성 되는 것이다.

이런 모임은 단순히 정서적 지원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친인척 네트워크가 커감에 따라 일자리 소개, 가족 내 결혼, 돌잔치, 환갑, 장례식 등 여러가지 큰 행사에 서로 오가면서 과거의 집단공동체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획득하게 되고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선족여성은 한국인 남편에게 과거 중국에서의 친구, 친척들과 일상적인 교류가 증가를 통해서 고립적으로 존재로부터 보다 다양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 C-1: 이제 동창모임. 인천에서 살 때는 연락이 안 됐었는데, 딱 그 친구 하나만 됐는데,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있을 줄 몰랐어. 근데 서울에 왔는데, 엄마 집에 있는데, 길에서 동창친구를 만났는데 동창모임한다고 해서 갔는데 몇십명 돼. 그래가지구 또 내가 회장 3년했고.

> c-3: 첨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 보니 엄청 많이 와있더라. 동창회두 하고 서로 자녀 결혼식이나, 애기 첫돌 생일 이럴 때 다니며 만난다. 중국에 있던 친척들두 최근에는 많이 들어 왔다. 다 무슨 시험봐서 비자를 받아서 오더라.

조선족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가족 행사에 한국에 이주한 많은 중국 친척, 친구를 초대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 서울에서 "조선족

집거지"의 상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조선족들은 보통 이런 장소에서 모임을 조직한다.

조선족여성에게는 친인척의 증가 등으로 친족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정서적, 경제적 여러 면에서 서로 지지하지만 항상 긍정적 인 것은 아니다. 한국자녀에게 '한국엄마'로 남고 싶은 '조선족'여성은 가족에서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친척들의 이주로 인해 '한국자녀'와의 만남이 증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 숨기고 싶은 것은 단지 '조선족'이 아니다. 중국 자체도 숨기고 싶은 것이다. 이때는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게 숨겨야 되는 대상이다.

C-6: 애 친구 엄마들은 다 한 동네서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지. 중국에서 왔단 걸 안 가르켜주고 싶지. 혹시 고향 물어보면 남편 고향을 말하지. 거기 가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부담감은 있지, 괜히, 없을 수는 없는거고.

애도 알게 된지도 얼마 안돼,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준게 아니라, 우연하게 알려줬지. 원래 가르켜 줘야 되는데 안 가르켜줘서, 또 가르켜 주고 싶지도 않았고. 뭐 엄마의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몰라도, 학교두 다녀보고 학교 친구엄마도 사귀다 보면, 확실히, 뭐 다문화 다문화 하지만은, 그런 차별이 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두 안했고, 얼마전에 얘기해줬지.

애는 그렇게 놀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다른 엄마, 집에 애들이 얘기하는 거 듣게 되니까 얘기 못했지. 조선족 아니구, 필리핀 애가 있었다. 필리핀 애가 있었는데, 막, 이제 걔들을 욕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 집은 그렇대,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게 소문이 다 퍼지게 되니까, 그런게 그런 것 때문에 ,애한테 피해가 갈 가봐. 공개를 못하고 그

렇지.

'조선족'이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이고 한국사회의 배척이 심하다는 현실에서 조선족 여성은 사회적으로 "국민"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회적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기존의 '국민'으로 '위장' 하는 것이 기타 귀화한 "조선족"보다 사회에서 더 편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중국 친족네트워크가 한국사회에서 재형성 되면서 이는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정 어머니'가 가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기타 한국사회에 이주한 본 국 출신의 친척, 친구들은 가족행사와 같은 중요한 모임에 서로 참석하고 도와주면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의 외연을 넓혀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친족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화두에 오르듯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들도 개인의 힘으로 일과 가정을 다 돌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본국 출신 친지들의 도움으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혹은 가정의 책임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난다. 친족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생활의 일상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제3절: 경제활동영역의 특징

1) 민족적 자원과 취업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노동이주자를 포함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이주 맥락과 마주한 현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자는 노동이주자와

달리 법적 지위는 가족영역과 관련된 것이고 노동이주자는 비자의 연장 등 문제에서 '고용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따라 고용주의 영향이 큰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노동환경이 비슷할지라도 고용주와의 법적 지위에서 평등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 법적 지위는 한국사회에서 평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도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이주를 포함한 '조선족 여성'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영업과 같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결혼이주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조선족여성들은 언어,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에 필요한 것을 갖고 이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이주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노동 참여률도 높다. 이런 경제적 참여는 한국에 와서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중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은 것과 관련되는데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전 조선족 취업경험률은 80.2%에 달한다. 현재 취업여부는 79.6%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주 전후 취업률이 큰 차이가 없다. 조선족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스스로 취직 할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자원이 있다.

조선족에게 가족영역에만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조선족여성들은 한국가족의 지지, 도움이 없이 혼자서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족 여성은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 이것은 언어, 문화의 자원을 통해 한국가족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서 '가출이 용이하다'(이혜경, 2005)는 차원과 같은 맥락이다.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경제적 개선을 위한 경제활동을 바라는 차원도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1차적으로 더 나은 가족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그 외 재혼으로 와서 한국인 남편과 자녀가

없이 지내는 여성들도 본 국 자녀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역시 경제 활동을 중시하게 된다. 이는 가족의 경제를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욕구이지만 그렇다고 '자기실현'의 가치가 부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취직하더라도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자기실현'의 가치의 의미도 부여하게 된다.

> c-1: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은 생활비 햇지, 근데 뭐가 애들도 커가고 이러니까 보험료 내고 이런것도 내가 다 하고, 내가 이 사람 믿고 살다가는 정말 너무 힘들겠다. 생활비도 이렇게 힘들게 받아내서 쓰는데,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해야겠다. 그래서 애들 임신해서도 직장 다녔고, 애기 낳고나서도 애들 기저귀 갈아서 놀이방 보내고, 직장생활 계속했어. 옛날 애들 키울 때하고 지금하고 계속 직장생활하고 있고.

> c-1: 지금 보험회사가 아니라 여행사에 직장다니다가, 가이드 쪽으로 해볼가 해가지고 자격증 공부 하고 있어요. 시험봐놓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 한국 역사 이런게 있어서 어렵더라고 잘 본건 아닌데, 어쩌면 커트라인 넘을 거 같고, 안되면 9월달에 시험 다 볼려고.
> 내일을 좀 준비하려고. 여행사를 오래 다녔는데, 이래 비젼이, 가이드를 한번 해볼가. 힘들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괜찮다해서, 한번 해볼려구. 지난달까지 여행사 근무를 했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전'이 없다는 의미는 단순히 '수입' 때문이지만은 않다.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성이 '보험회사 - 여행사 - 가이드' 등 더 나은 환경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자 하는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실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현실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감행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곧 깨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경험이 없었던 조선족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들일 뿐만 아니라 "동포"가 아닌 "최하층 노동자였다." 이런 상황은 한국으로의 이주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 친인척들의 실제경험을 통해서 조선족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사회가 조선족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한국사회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알고 이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사회의 동포정책과 관련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언어가 통하는 곳이고, 단순노동직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경우 중국에서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족사회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속하는데 전체 동북지역의 공업쇠퇴와 자국 내 경제적 낙후 때문에 조선족들은 기존의 거주지에서 "돈을 벌 수"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아직도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이주를 하는 것은 환상적인 "코리안 드림"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같은 직종 대비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즉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는 예상하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도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이주자가 처한 환경과 많이 다르지 않고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과 취업을 동시에 고민하는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노동이주의 맥락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C-4: 응 그런건 있지.(한국에 대해서) 나는 오면서리 사람들이 이런거 많이 들었재, 먹지 못했다, 굶었다, 욕먹었다, 엄청 많재나. 아, 한국 왔을 때, 내 인생은 뭔가는 조금 달라지겠다. 여기에 오면 처음에 내가 뭔가 구속되지 않겠나, 이게 젤 우려 되는게지. 거기서는 그나마 막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 첨에 왔을 때, 이제는 고생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 했어, 왜냐면, 호강하러 온건 아니잖아, 돈벌러 온거지, 지금두 돈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 돈이 필요했고,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내 이젠는 조금 남의 땅이니까. 그렇지, 남의 땅이지, 처음에는.

그런데 최근 이주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현재 재외동포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제적 기회가 한국에서 증가하면서 전문직과 같은 일자리도 조선족을 한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 간다. 역시 “경제적”발전을 우위에 놓은 것과 그래도 중국 내 보다는 외국이라는 특징이 조선족들에게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욕구를 만족 시켜주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이후 부분적 경제발전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환상적 나라”가 아니라 중국 내 북경, 상해 등 대도시와 같이 좀 더 발전한 곳으로 인지 되면서 최근 입국하는 고학력의 조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라기보다는 중국의 대도시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C-5: 원래는 유학가려고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오퍼 받은게 장학금 다 주는게 이이구 이렇게 절반만 주는데라 가지구, 집에 부담두 되구 해서 다시 취직준비 하다가, 원래는 그 이제 받

았던 오퍼 중에 이거 말구 다른데 더 가고 싶은데 있었는데, 중국회사중에 it쪽에 회사 2개랑 경제쪽에 회사 있는데, 근데 거기는 어린 마음에 그래두 외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처깜에 왔을 때 한 2~3년만 일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던지, 원래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으니까, 다시 공부하든지 중국 가든지 할려고 했슴다.

2) 노동환경과 대응방식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세대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학력 우위가 없으므로 한국에 이주한 뒤에는 대부분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중국에서 직장생활의 경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학력 우위를 갖고 이주를 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전문직, 기술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중년 여성의 모습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조선족여성"의 이미지이다. 식당, 숙박업소 등이다. "조선족"이란 이미지가 1990년대 초반에는 "동포"라는 이미지로 부각되었지만 후기부터 한국 사회의 범죄, 폭행, 사기 등 조선족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조선족으로서 이런 "조선족 이미지"를 안고 산다. 한국사회가 조선족에 대해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동포"로 인정받았지만 조선족의 한국으로 이주가 급증하면서 위장결혼으로 인한 "도망간 아내"라는 한국가족 파괴하는 가해자로 혹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가난한 나라 여성"으로 피해자로 부각되었다.

C-4: 2001년도 마흔네살, 금방와서 일했으니까, 그때는 2월달

이고, 고게. 그날 저녁에 굴전 부쳐갖고, 그 로인네는 이제 할아버지는 아줌마가 고생했으니까 부친거 갖고 오란데, 이 할머니는 교포라고 무시하고 이제 그거 또 아까워서 자기 동생들 다 나눠주고, 줘두 내가 안 먹어, 지금도 내가 굴 안 먹는다. 비린거 싫어해서. 근데 그걸 모르까, 내가 먹음 또 얼마나 먹겠니.

한번은 딱 아줌마들이 시계를 여기 시간관념이 엄청 심하잖아, 딱 봐서 늦으니까 (한국 주인사장이) 하는 말이, "떨거지 같은 것들이 아직 안온다"고, 그래서 내 사장님 말 조심하라구, 진짜 양심없다구. 왜, 당신은 어째 오는 시간만 계산하고 오는 시간은 계산 안하냐고. 내가 보면 열시 교대니까, 어떤 언니들이 40분씩 늦게 가, 악착 같은 손님들이, 이 언니들이, 근데 우유 한병도 안 사줘요. 그리고 시간제기 때문에, 돈 좀 더 줘야재, 근데 자기 맘이 내키면 한 2천씩 더 주고, 안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내는데, 그 언니들이 다음날 오길래서 참고 가고 하는데. 당신이 오는 시간 계산하고 가는 시간 계산 안하고, 언니들 보통 보면 이삼십분 늦게는 사십분씩 늦게 가는데 돈 줘요? 우유 한 컵 사주냐고, 그래까나, 니네는 잘났다.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거야.

조선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무시는 결혼이주여성이든 노동이주여성이든 혹은 기타 이주자이든 막론하고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다. 노동이주자는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가 종속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비자 연장'과 같은 법적 지위 면에서 한국인 고용주의 역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법적 지위 면에서 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차별과 무시'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조선족이지만 직장에서 주인 ,상사 혹은 기타 "한국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하면 무시 받는 “교포”로부터 인정받는 “동포”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조선족 내에서 기존의 “문제인 조선족 이주자”들과 스스로 차별화 하고, 한국인과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이라는 유대감을 활용해 사적인 인맥으로 발전되어간다.

C-3: 갠데 여기 와보니까 사람이 나름에 간단 말이다. 내가 어느 만함 사람들두 어느 만하구 이렇더라. 갠데 내 와서는 사람들이 날 깔보고나 이런건 하나두 없다. 다 사장두, 저 여자 중국에서 다 대단한 여자라는게지, 이기 올 때 보면은, 무시하는게 하나도 없었어. 글쎄, 다른 사람은, 뭐 깔보구 이런 소리랑 들었는데 나는 그런 적 하나두 없다. 이 사장들이랑. 난 여기 앉아서 계속 사장님, 사모님 소릴 듣는단 말다. 모른단 말이, 손님들이 올라가메, 깔보구 그런거 몰라. 개까 내랑 이전에 직장 좋고 중국에서 이러까나, 이기 사람들 보는 관점 좀 따캤지

C-4: 한국 사람도 사람이니까 암만 내가 잘 하는데 무시는 안 할거다, 잘 하면, 개까 고런게 있었기 때문에, 하면 나는 내일까지 이 집에서 한다면 하는 그 순간까지 잘 해줘. 내 자랑하잠 고고뿐이야. 내가 야 내일 나가겠는데 오늘 대충 하자 이런 생각은 없어, 나가는 순간 까지 잘해주니까, 다음에도 전화연결이 되고.그 할매(전 일할 때 가게 주인-한국인) 연결이 안 돼, 전화 번호 바뀌었더라. 그리구 다 돼.
전에 일하면서 친했던 사람들 다 련결이 되지, 만나지, 그 집은 워낙 이렇게 부른다 또. 집행사에도 부른다. 나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지금두 전화하면 이제 불르면 무조건 온다. 워낙 내가 첨에 교포라 해도 그런 눈치를 안줬어.

노동시장 즉 직장에서 "한국인"에게 인정받는 방식은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한국이 알아봐준다는 것이다. 열심히 했을 때 단순히 일의 효율성이나 완성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과 평등한 동포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에 알게 된 한국인 지인이 있다는 것을 한국사회에서 받은 인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인적자원의 구축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정서적 지지도 받고, 노동시장에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기회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경로에서 스스로 찾아나서는 비율이 제일 높다.[29]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먼저 한국에 이주하고 정착한, 경험이 있는 이주자공동체의 기타 구성원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취업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는 이주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의 학력 및 기술 등 우위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 외 한국 내에서 형성된 가족친지 네트워크의 영향도 받게 된다. 일하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함에 있어서 이주자공동체를 통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c-4: (한국에 와서 첫 취업한 곳에서)내 그날에 평생에서 제일, 정말로, 오죽하면 울었다니까 막, 들어와서 씻고, 한 달 딱 월급 받고 한 열흘 더 했는데, 막 친정엄마 아프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받아갖고 나왔어.
>
> 우리 친구들이 보던게 이건 니 있을 자리 아니라구, 그래구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삼겹살 집에 소개해주더라구. 그 집에

29)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는 그 언니, 면접 딱 갔는데, 그 언니가 알고보니까 나 보다 한 살 어린데, 내가는 언니라 하고, 그냥 여긴 다 언니 잖아, 후에 알고 보니 나보다 어리더라구, 남편이 두 살 더많고 나보다. 우리 셋이서 친구처럼 장사 했다.

제4장: 한족여성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특징

제1절: 한족 국제결혼이주 현황

한족 여성들은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그 규모(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가 조선족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한족여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한족 여성들은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이주방식은 브로커, 가족, 지인, 스스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친구, 동료의 소개'의 방식이 가장 큰 비율(31.5%)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은 한국과 '혈연연고'로 인해 가족의 소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브로커의 방식을 통한 결혼도 19.6%로서 적지 않은 규모이다.[30]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한족여성들도 학력이 낮을 수록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학력이 높은 여성일 수록 '스스로'를 통한 확률이 높다 (김승권 외, 2010).

9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고 본격적인 시장개방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조선족사회는 이때에 본격적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당시는 국내 대도시 혹은 발달한 지역보다는 한국으로 이어졌다. 한족은 전 중국에 넓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경제, 사회 영향을 많이 받는다.

78년 초기 개방 뒤 동남연해를 중심으로 먼저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으로의 노동이주도 급증했지만 동남연해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떨어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곧 중국의 '도시화'가 발생하였다. 대부분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 혹은 연해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시장의 개방과 함께 사람들의 직업 환경도 안정적인 '단위'체제에

30)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동북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은 그 영향이 심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시장영역에서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대학교육의 보편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위해 또 대도시, 연해도시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중국 국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족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조선족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조선족지역에 있던 한족들도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신부'가 필요한 남성들이 '조선족'외의 기타 지역과 국가의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과 브로커들의 조직화 등이 맞물려 한족여성들의 이주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외 친구, 지인을 통한 만남은 중국으로 사업, 학업을 위해 진출한 한국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만남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더불어 한국으로 유학, 사업 등 이유로 이주하는 한족들도 증가하면서 한족과 한국인의 결혼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고학력의 한족여성과 한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세에 처하지 않은 남성들의 결합은 아직은 주류가 아니다. 이들은 적어도 언어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집단이다. 그러나 저학력의 경우 거의 한국어, 한국문화 등과 관련된 것 없이 이주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이다.

제2절: 가족생활영역의 특징

1) 한국가족에 대한 적극적 대항

한족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주하게 된 것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브로커를 통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온 한족여성들은 한국의 언어나 문화 등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했다. '한국'으로 간다는 의미보다는 '원

래 살던 곳'에서부터 좀 더 괜찮은 지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중국사회에서 시장의 개방과 함께 지역사이 인구이동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연해도시로, 대도시로 그리고 발달한 외국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맥락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90년대에 20대와 30대 혹 그 이상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고학력 인구가 희소한 시기였다. 또 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찍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많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지위가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H-1: 第一个是离婚率太高，中國東北那邊儿离婚率特别高。第二个就是沒有的基本工資來源， 現在東北那邊就業的太少,基本也就是臨時的,感覺沒有安全感。

(첫째는 이혼률이 너무 높았다. 중국 동북지역은 이혼율이 진짜 높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없다. 지금 동북은 취업된 사람이 적고 보통 임시 계약직이 많아서 안정감이 없다).

H-3: 92年建交，那个時候沿海城市發展比較快嘛，有合資企業什么的，畢業以后我大姨也在哪儿，沒想過上韓國，就是去沿海城市。

(92년도 수교한 뒤 당시 연해도시가 발전이 빠르고 합자기업이 들어왔다. 졸업하고 큰 이모네가 청도에 있어서 갔지. 한국 갈 생각은 한 적 없다. 그냥 연해도시로 가고 싶었다.)

H-5 : 우리 푸쨴은 일본 가는 사람 많아, 이십년, 삼십년전부터, 개방한 뒤에 노무수출로 일본, 싱가폴로 다 가고 그리고

노무수출로 나가서 아는 사람들이 소개 등으로 결혼 많이 가.

특히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교류가 잦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 기회를 갖게 되면서 국제결혼도 등장하게 된다. 유학, 취업 등 방식으로 상대 국가에 머무르는 동안 만나게 된 사람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한국남성들이 중국어 능력을 갖고 결혼하거나 반대로 한족 여성이 한국어 능력을 갖고 결혼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경우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주 했을 시 언어적 소통은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한국에 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 이주를 하게 된 것이다. 이주 할 때는 한국에 당분간 있을 것이고 언젠간 중국으로 함께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으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H-2: 大概過了，半个月，我老公回韓國了，2004年本來不打算來，本來在中國多待一点時間，我怀孕了，沒辦法呀，2004年年底來韓國了。一開始，我的愛人本來要去中國，他去大韓航空的目的是他想去中國工作。沒有，大概等几年呀，3~4年吧，那樣的感覺一直有，爲什么不去，因爲他去大韓航空近兩年多了吧，還沒有消息呀，所以我在想，他現在要去我也要考慮一下。如果公司讓去的話那是沒有辦法，如果以个人的名義去的話我要考慮，愼重的考慮。去還是不去，因爲我還有家呀，去的話很麻煩，要租給別人，孩子們的學習呀，到中國以后孩子們的學習條件都得考慮，不是自己呀，我們兩个人的話隨便，但是孩子的問題挺難。

(결혼하고 보름 지나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다. 2004년 때인데 원래 오기 싫었다. 중국에 더 있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2004년 말에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남편이 중국으로 다시 갈 거라고 했고, 대한항공회사에 근무하면서 목적이 중국에 파견근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3~4년이 지나고 계속 답답했다. 왜 아직도 중국으로 안 가는 것인지, 남편 회사에서 발령이 나지 않고 있으니 개인으로 가기엔 부담된다. 또 중국으로 간다고 해도 이 집도 처리해야 되고 애들의 공부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고려할 것이 너무 많다. 둘이면 쉽지만 애가 있고 가정이 있으니 쉽지 않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이 한국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족여성은 가정이라는 영역 내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에서는 남편이 중국어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경우 부부간의 소통은 어려움이 적지만 기타 가족식구들과는 여전히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가 교류를 어렵게 만든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본인이 자습을 통해서 얻는 것 외에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한국시어머니” 등 가족구성원 그리고 이웃한국주민들과 교류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주지 중심의 언어센터에서 혹은 “어학원”에 다니면서 공공서비스이용 혹은 어학원시장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어의 습득, 한국문화와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는 순조로운 것이 아니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한족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한편 동시에 문화적인 가치충돌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족 여성들은 가족 내 혹은 언어기관과 같은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해가지만 한족문화와의 가치충돌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의 거주지가 가까운 경우 혹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기회가 많고 언어적 훈련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식적 습득 이외 현실 생활에

서도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는 언어적인 자원 획득 면에서 한족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H-2: 2004年年底來韓國了。 開始，語言不通呀，沒有，一句沒有，可是婆婆特別有耐心，当時我的婆婆工作，几乎每天給我寫信，可是我看不懂，也寫，寫信，給我放零花錢。剛開始我跟婆婆一起住，婆婆家是三層樓，我們住一層，婆婆住三層，婆婆每天工作的時候，我一个人在家，不能說話，還有不能出去，所以，婆婆每天給我寫信，給我零花錢。

我畢竟是个媽媽呀，既然，事業再重要，那孩子現在的年齡最需要媽媽，他們長大以后就不需要你了，如果你現在不照顧她的話，以后對她的心灵是一种傷害。所以我有時間盡量和她們一起玩儿。孩子們小時候最容易受傷。你現在不知道，我以前也不知道，可是現在能感覺到。

我這种感覺是跟婆婆身上學的，婆婆對孩子們特別好，對她的儿子，這么大吧，也特別好。她女儿去年結婚吧，之前沒有自己洗過衣服，都是婆婆。婆婆特別有誠意，給孩子們做的那个，出去的時候做的那个도시락，特別有誠意，盒飯。婆婆以前有工作，爲了我和孩子辭職了。我婆婆是廚師，做菜做得好，可是本來婆婆不想在家，可是公公說不行，你應該照顧孩子，然后婆婆放弃了她的工作，爲了孩子沒辦法。

(H-2: 2004년 연말에 한국에 왔다. 처음에 와서 언어가 막혔다. 하나도 배운적이 없다. 시어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줬다. 출근하시면서 매일 나한테 편지도 쓰고 용돈도 주셨다. 낮에는 나 혼자 말도 못 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다. 애들의 엄마로서 시간이 나면 애들과 함께 놀아주고 보살펴줘야 한다. 이런 느낌은 시어머님한테서 배운 것이다. 시어머님이 나와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요리사를 하시다가 사직했다.

시어머님은 집에 있기 싫어 하셨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직업을 포기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다).

H-3:上上海之前我那个家教，教漢語挺多的，就沒有正式上班儿。我念了語學堂，我在那个延世大學語學堂念了半个學期，就是五級六級。

不是，在家我老公不說話，像我一些朋友她和婆婆一起住，發音也好，語言能力非常好。但是我天天在家里待着，從去年開始吧，天天，我經常跟我儿子說漢語，你知道嗎，我有的時候說韓語，以前覺得水平還挺好的，爲啥，当時我認識很多아줌마，她們話很多，跟着學了很多東西，在上班儿。最近我發現，說一些話都不知道了，完了自己說出來好像驢唇不對馬嘴那种。

(H-3: 상해로 가기 전에 나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했다. 정식으로 출근은 안 했다.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 학기동안 공부해서 한국어 5-6급을 땄다.

그런데 집에서 지금은 남편이 말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은 보면 시어머니와 같이 계셔서 발음도 좋고 언어능력도 좋다. 요즘에는 애들과도 중국어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수준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네 아줌마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근할 때 많이 배웠다. 지금은 말의 어순이 구조가 잘 안 맞는다).

시부모와의 접촉은 언어나 문화를 빨리 습득하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빚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족 여성은 가족 내 남녀역할 규범 및 시부모와의 세대적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족여성들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남녀 역할 평등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부모님 앞

에 무조건 수긍해야만 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본다.

H-2: 這是我的生活方式，公公也有時候吵架，對我特別好，可是有時候說話不喜歡听， 那我就跟他吵架。公公覺得他錯了就給我打電話，就對我不一樣，跟婆婆，老公不說錯。以前這个家，爸爸的性格比較不好，媽媽和我愛人不敢多說話，我來韓國以后，我的性格本來不听話的。你說的話不對的話我干嘛要听呀，我就不听。以前我的丈夫說韓國人父母如果說是月亮，那么是太陽也要說是月亮，但我就感覺是太陽怎么是月亮，眼睛有毛病啊，不可能，我就不能那么做，我在北京的時候就跟他說過。

(H-2: 이건 내 생활 방식이다. 시아버님과도 싸우고. 나한테 매우 잘 해주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논쟁한다. 시아버님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나에게 전화로 다시 말하는데 나한테만 그런다. 시어머님과 아들한테는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 예전에 이 집에서 시아버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찍소리도 못 했는데, 나는 말 잘 듣는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온 뒤에 상대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듣는다. 내가 한국에 오기전에 남편이 나에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해를 가리키고) 달이라고 하면 달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없다고 북경에서 남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H-4: 覺得韓國社會還是有点大男子主義，因爲我們那邊女孩都比較獨立的，像重慶女孩子火爆，而且一般是男主內，男孩子不僅要去賺錢，包所有家務，就像我爸爸一樣。但是到這邊來以后，不過我從小被培養的獨立，反而對婆家人來說撿了个便宜。現在家務事和婆婆分着做，老公也會帮忙。

(H-4: 한국은 가부장적이다. 우리 고향에서는 여자들이 다 독립적이고 성격이 화끈하다. 그리고 보통은 남자들이 가사도 하고 돈도 벌어 온다. 모든 가사를 다 한다 우리 아빠처럼.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렇지 않다. 다행히 나는 어릴 때 독립적인 생활을 많이 해서 지금 시집 식구에게는 아주 행운인 것이다. 가사를 시어머님과 나누어서 하고 있다. 남편도 조금 도와준다).

H-5: 시어머니, 시누이 한테도 존댓말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못해니까, 그냥 혼나지. 생각 안좋아하는거, 나쁜 말로 흉하고 있다. 알지. 존댓말 아는데, 요자 붙어야 되는대 안하면 혼나지.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일단 요자가 붙어야 돼. 밥먹어요보다 밥먹어, 요자 붙어요. 이제는 십년 사니까 적응 되는데, 내가 존댓말 안 해도 재밌어 하니까.

언어와 문화의 차이, 특히 중국어에 "존댓말"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한족여성은 본의 아니게 시집식구와 대화를 할 때 "말을 놓는"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시댁식구들은 황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특수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족 여성들은 중국사회에서 가사분담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거나 남성들이 떠맡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문화는 한국 가족생활에서도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시어머니”의 “한국식 며느리”역할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능동적으로 한국가족문화에 자신의 문화를 접목시키려는 특징이 강하다. 시부모 혹은 가족들은 한족여성에 대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거나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다. 특히 한국인 여성이라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족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가능하게 만든다.

H-1: 每到제사的時候都聚在一起，我一般不去，太遠了，全州，我第一个是身体不那么好，暈車，從小体質弱，不怎么太好。
(H-1: 제사가 다가올 때마다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나는 보통 안 간다. 전주는 너무 멀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멀미를 한다).

H-2: 婆婆在的時候不是太累，因爲婆婆給孩子們吃飯，做飯。我不會做飯。
면접자: 來這儿之后沒有做飯嗎？
H-2: 不是來這儿以后不會，我在中國就不會做飯。
면접자: 直不做是嗎？
H-2: 几乎不做，但是星期天的時候沒有辦法呀。所以平常不做，都是婆婆做。
면접자: 那他們對這个沒有說什么？要求什么是吧？
H-2: 沒有。他們很好，他們特別好。
(H-2: 시어머님이 옆에 계실 때는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애들 밥도 해주고. 나는 못 하니까.
면접자: 여기 온 뒤에 계속 밥을 안 했나?
H-2: 여기 와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안 했다.
면접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한 것인가?
H-2: 거의 안 했다. 일요일은 어쩔 수 없다. 평소에는 안 하고 시어머니가 했다.
면접자: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나? 요구한 것은 없나?
H-2: 없다. 그들은 아주 좋다).

H-9: 명절 때 친척들 모이고 여자들이 음식 만들 때 나는 티비 본다.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할 줄도 모르니까. 그리

고 설에 절 할 때, 나는 옆에서 그냥 서서 인사를 드린다. 내가 왜 무릎 꿇고 해야 되나.

한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낼 때, 남편이 출근 할 때 나는 자고 있지 굳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남편은 들어오면 혼자서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폭발하셨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남편과 아들에게 한생 했듯이 나도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타협을 안 한다. 왜냐면 하나를 해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나는 한국적인 것에 습관돼야 한다.

물론 한국인 남편 및 가족의 세대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한국인 남편은 가사일 등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한족 여성들도 중국에서는 일을 안 했지만 한국에 와서 주체적으로 가사일 같은 것을 떠맡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가사 일 하는 것을 자신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국가족은 나 처럼 가사 일 하는 사람을 맞이 한것은 그들이 행운이다"(사례 4)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공헌'이라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들이 가사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에 대한 거부감도 강한 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나 역할들이 한족여성들이 마주하기엔 불평등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 한족 여성들은 강하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족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한다.

H-2: 有一次，吃午飯的時候，婆婆不在家，一起吃飯的時候，公公說拿那个湯給妹妹吃，丈夫妹妹，妹妹以前還沒有結婚。我就想，一起吃飯跟我說拿湯給妹妹吃，然后我心里不高興啊，但是

我去了，但是我愛人知道我的性格，他說我來吧，我說沒關系，他覺得我不高興就對爸爸說，如果爸爸要的話跟我說沒關系，妹妹比我小讓他自己拿。爸爸不同意，爸爸听了不舒服，他女儿，他說，在韓國就是這樣，然后我愛人就說他不是韓國人，你也要接受她,然后他們倆吵架，那天中午都沒吃飯。

但是這个問題要解決啊，找公公聊，我生气的是爲什么叫我拿湯給她喝，拿湯就行了唄，她比我小，我是嫂子，她是妹妹，我說爸爸不應該用這樣的態度跟我說，好像我是外人一樣，說完以后爸爸不說話。

慢慢變了，妹妹也變了，自己吃的東西自己吃完洗完，自己收拾。媽媽在的時候，都是這樣，都等媽媽吃飯，那件事發生之后，她回來完了自己吃，自己洗碗。公公也變了，對我。因爲我說話直爽啊，我不把那事儿藏在心里，越來越了解對方了，所以公公有時候也說，你說我我傷心。他說的不對的話我不能說是啊，我要反饋啊，他就傷心，我說是爸爸也有對錯啊。婆婆經常跟他說儿媳婦這么遠過來，兩个國家文化不一樣，公公說是，不管怎么樣，我們應該好好待我們儿媳婦。有的時候他生气不開心，就不吃飯回家，回家之后給我打電話，又沒事。

(H-2: 한번은 점심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안 계시고 시아버님,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나보고 시누이한테 국을 떠다 주라고 하셔서 화났다. 같이 밥 먹는 중인데 왜 나보고 어린 시누이 한테 국 떠줘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기분 나빴지만 국 뜨러 갔다.

남편은 내 성격 아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시아버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국 뜨는건 괜찮지만 어린 시누이한테 내가 해야 되는게 이해되지 않았다.그러자 시아버님은 불쾌해하셨다. 자기 딸이니까. 그러면서 한국은 원래 이렇다고 하셨다. 그래서 남편이 이 사람은 한국사람 아니

라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그날 점심은 다 못 먹었다.
나는 시아버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내가 국 떠오는건 괜찮은데, 시누이가 어리고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는건 나를 외부살마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 시누이도 그 뒤로 알아서 혼자 밥 챙겨 먹고 그릇도 씻고 했다. 아버님도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하셨다. 시아버님은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속상하다고 하셨지만 내가 틀린건 틀렸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두 국가 문화가 다르니까.)

한족여성들이 남편 및 시부모가족의 인정을 받을 때는 이들이 "가정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한족여성들이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한국가족이 이런 삶을 요구할 때도 있다.

H-2: 适應不了，怎么說呀，韓國文化有点壓抑。家庭也不一樣，我們家呢這么開放，但是還是有壓抑感，我一般生活在學校，對社會接触的不多，這个家庭沒有什么特别壓抑，都在努力，我一般在家，沒事儿就在家，几乎沒有自己的時間，所以公公婆婆喜歡呀。我對家庭很重視，對孩子，對老公，對他們比較重視，所以他們覺得挺好。壓抑感呢，文化不同，語言理解能力不同，所以有時候發生誤會呀，在這儿生活，現在不方便的也不是很多。有孩子的時候已經不想自己怎么樣了。
(H-2: 적응하기 어렵다. 한국문화는 억압적이다. 가족내에서도 그렇다. 우리 집은 개방적인 것도 억압된 느낌이 있다. 난 사회와 접촉이 많지 않다. 이 집은 특별하게 압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 노력하고 있다. 난 보통 집에 있고 내 개인적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부모가 좋아하신다. 내가 가정을 중시하니까.

억압적인 것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이해가 달라서 오해도 생기고 그렇다. 이제는 여기 오래 살아서 너무 불편한 것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안한다.)

한족여성이 가족 중심적 지향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한국가족, 사회문화에 동화되었거나 가족영역에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 아니다. 한국문화가 억압적이고 이질감이 커서 사회와의 접촉이 어렵고 노동시장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된다.

2) 중국출신 여성들 간의 만남

지역에 있는 한국어 언어센터는 초기 종교단체와 같은 곳에서 많이 조직되었다. 한족 여성들은 초기에 언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문화센터가 생기면서 한족여성들은 여기로 모이게 되었다. 그것은 다문화센터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자원도 서비스도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주요하게 언어적, 문화적 자원을 획득하러 센터에 오지만 그 이외 같은 중국인 출신을 만날 수 있고 고립된 가정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언어,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다른 경로는 언어센터 및 어학원 다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하게 가정영역 이외 외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보고자 한다. 이런 기관의 존재여부를 알게 되는 것은 한국인 남편과 가족을 통한 정보에서 오거나 본인이 재한중국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정영역에만 갇혀 있던 한족여성들은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는 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최근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이주자에게 언어

교육, 문화교육, 컴퓨터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언어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의 한국어 공부는 한족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가 힘들다. 공공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한국어를 언어적,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이 어렵다. 반대로 개인적인 시간과 자본을 투자한 “어학당”, “어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언어적,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언어센터는 언어, 문화를 배워주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 H-8: 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우연하게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하는 언어센터가 있다는 걸 알았다. 후에 가보니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비교 안 된다. 배워주는게 적다. 그런데 센터 다니니까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알았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워주는 한국인 선생님과 배우려고 찾아 온 중국 한족여성은 단순히 언어적인 지식 전수와 습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또한 한국인 선생님 및 관리자와의 관계도 형성되는데 거기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이라는 제도적으로 다른 국가적 환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부재는 종종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종교단체 언어센터 및 다문화센터에 한족여성들이 많이 모이면서 일들은 거주지가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쉽게 인적망이 구축된다. 이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센터에서 같이 수업 듣는 것 이외 수업 끝나면 서로의 집에 모이거나 근처에서 이야기 공간을 찾아 비공식적이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육아문제,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조언을 구한다. 특히 한국에 친구도, 친척도 없는 대부부의 경우, 이들에게는 언어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같은 출신 한족여성들은 친족네트워크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H-1:上那塊儿可以學韓國語的地方，就自己上，就离家不遠一開始，在那儿上學還挺好的。認識了一些朋友，都是中國人。我之前坐月子也是。就是那个姐給我伺候半个月，就基本上自己了。
(H-1: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갔다. 집 가까이 있고 친구 몇 명 알게 되었다. 내가 산후조리 할 때도 그 때 안 언니가 와서 보름 챙겨줬다. 나머지는 내 혼자 했다.)

H-3: 那个是政府辦的，就是爲了移民女性，就是在這儿結婚過來的女性，在爲這些人，因爲很多人過來不會韓語嘛。
其實上那儿吧，也不能說沒有效果，但是也只有一点点的效果，当時就是去的原因就是，在家的憂郁症了，太无聊了，我去了交朋友，当時就是，我生了老大以后，怀老二的時候去的，因爲当時我，我大儿子沒送幼儿園，我天天在家怀着我二儿子， 完了我還看着我大儿子，那時候，那一段時間自己都崩潰了，有点像自殺了那种感覺，我就覺得到那个交朋友啥的，我老公就說你去交朋友吧，就是交朋友的目的。去了以后交了挺多朋友的。去上那邊好處就是，你天天在家里不知道消息，交一些朋友的話，能懂很多知識的中國的，完了韓國有一些什么好政策啊，你天天在家里根本就不知道。還有那个江北區的一些新聞啊，報紙啊，有些消息。
(H-3: 정부에서 만든 이주여성을 위한 센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올 때 한국어를 모르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언어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효과 없다고는 말 하기 어렵지만 큰 효과가 없다. 내가 다닌 이유는 집에서 우울하고 너무 답답해서 친구 사귀려고 갔다. 둘 째 임신하고 큰 아들 보고 있을 때

한동안 너무 답답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남편이 나보고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라고 해서 갔다. 지금은 아주 좋다. 친구가 생기니 중국에 대한 소식도 듣고, 한국에 무슨 좋은 정책 있는지도 알 수 있다.)

H-4: 첨에 한국에 와서 너무 답답하고 우울 했는데 다문화센터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한테 화냈다. 이런 정보도 잘 알아오지 못하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족 여성은 한국에 오는 루트도 다양하고 중국에서의 지역출신, 학력 등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사회에 와서 언어적, 문화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했다는 공통적인 요소로 인해 유대감이 쉽게 형성된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중국 이외 기타 국가 출신에 비해 자신들이 우수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편견도 인식하지만 자신의 비교준거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등 기타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력의 증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데서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의 위치를 한국인과의 비교속에서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H-4:人家也有戴有色眼鏡的也有，不過最近几年中國過來的條件都挺好的，隨着國家的强大吧，整个素質都不一樣，我們中國人學韓語比別國人快，理解力也快。

(H-4: 한국사람들 중에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다. 국가가 강대해지니까 전체 소질이 달라졌다. 우리 중국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것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보다 빠르고 이해력도 좋다.)

그러나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항상 가족의 지지를 받거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지만 가정영역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시부모의 간섭이 있는 경우는 모임에 자주 합류하기가 어렵고 다만 센터에 다니면서 언어 공부하는 것이 주요한 일상으로 된다. 한국인 시어머니가 가정 이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참여가 본인 의지에 반하는 경우인데 여성이 가정영역 내 에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 관념과 관련된다.

> H-5 : 아는 사람, 중국사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가서 모임 그런거 잘 안 해요. 왜냐면 가서 모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 시간 맞추고, 시어머니도 옆에 있고, 내가 할 일 너무 많아서. 수업만 듣고 바로 와요, 거기 자주 모임하는거 안 갔어요. 못 가는 거죠. 친구 만나면 좋죠, 근데 못 가는거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만 그것만, 외부 무슨, 조건 내 생활 영향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 단체 같은 거 있었는데, 보통 니먼 조선족, 한족 분은 없을거야. 있어 내가 들어서, 회비 한달에 1만원 하는 것두 있고, 근데 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아예, 안가요, 그것두 80퍼센트는 조선족이야.

그런데 한족여성들의 모임은 아직 공식적인 모임, 단체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다. 왜냐면 정부의 공적 개입이 없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룬 것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기타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없는 것과도 관련된다.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경험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적고 특

히 가족 내에서 먼저 한국사회 문화를 겪은 한족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해 대부분 거부반응이 심한 것으로서 이는 가정 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혹은 노동시장영역에서의 "중국"인으로서 받은 차별 경험, 여성으로서 받은 차별경험 들이 가정영역에서 겪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영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에서의 가족-지인 네트워크가 한국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한족여성들을 가족생활에서 고립적인 경우가 많다. 정서적으로고 고립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남편의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사 등 물질적 면에서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일-가정 양립의 과제를 안고 있다.

H-1: 太累了，沒有她好一点儿。冷不丁給我一个孩子，什么也不管，生她的時候得了우울증, 總回家還好点儿。他對我還行，說想回家就可以，反正是這邊沒有親人。

… …

都不愿意來，因爲啥，韓國也沒什么好，就是一个掙錢，現在中國條件也不算是很差，過來了語言都不通，感覺韓國有点儿，過來太費勁了。過來事儿太多了，辦這辦那儿得，現在連自己的母親父親辦都費勁。

沒有，漢族和朝鮮族不一樣。我就覺得這个挺不好，按理來說漢族過來好過來，因爲漢族過來就是來溜達或是帮看孩子什么的，朝鮮族過來就爲了掙錢，我感覺這点可不好了。

你說，父母過來了，不會說話，就帮忙看孩子，帮我照顧家里頭做做飯什么的，我可以上班儿，都不可以。

(H-1: 너무 힘들다. 애기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혼자 다 해야 되니까 남편은 아무 것도 상관 안한다. 애 낳을 때 우울증도

걸렸다. 고향에 자주 가니까 나아지는 것 같다. 남편이 나한테 괜찮다. 집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게 한다. 어차피 여기는 친척이 없으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 돈 좀 버는 거 빼고 좋은게 없다. 중국도 지금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오면 언어가 안 통하지. 그리고 오는 것도 서류가 너무 힘들다, 내 부모 초청하는 것도 힘들다.

한족은 조선족과 다르다. 이것은 너무 좋지 않다. 도리대로 말하면 한족이 더 쉽게 올 수 있어야 맞다. 한족, 우리 친척들은 와도 좀 지내거나 애기를 봐주거나 하지만 조선족은 돈 벌러 오는 것이니까, 이런 차별은 나쁘다.

중국에서 부모님이 오시면 애도 봐주고, 집 가사도 도와주면 내가 출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제3절: 경제활동영역의 특징

1) 경제활동 욕구와 현실의 괴리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전체적으로 강한 편이다. 특히 중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보편적이고 특히 직장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필요한 학력, 자본을 갖춘 여성들은 자기실현의 한 부분으로 취직을 간주하면서 강렬한 욕구를 내보인다. 즉 결혼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보편적이다.

H-8: 남편이 원래 중국에서 취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에서도 취직이 되면서 남편은 나를 설득했다. 본인한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나도 중국에서 공무원인데 괜찮은 직업이었다. 일단 내가 한국에 가서 취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 보는게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원 신청하고 실제로는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중국인으로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취직에 성공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다.

H-4： 我希望自己在韓國好好發展，我覺得畢竟學的這个專業，我的飯碗就是靠外國人，而且畢竟出來了，就應該好好地做一番事業再回去，就是光宗耀祖… … 。
(H-4 : 나는 한국에서 잘 발전하고 싶다. 내가 배운 전공이(대외한어)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외국에 왔으니까 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고향에도 자랑스러운 정도로 잘 하고 싶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한족은 한국 입국전 취업 경험률은 77.9%(조선족 제외 중국인)에 달한다. 이는 높은 노동시장 참여를 보여준다. 한국 입국 이후 취업여부조사에서 노동시장 참여률(현재 일하고 있다+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 한 적 있다)는 64.2% 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이주자로 살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취업률과 한국에서의 취업률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와서 취업률이 낮은 것은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이 45.2%(평균이 49.1%)로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두번째는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18.5%(평균이 13.0%)를 차지한다.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경제적 개선을 위한 경제활동을 바라는 차원도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1차적으로 더 나은 가족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그 외 재혼으로 와서 한국인 남편과 자녀가 없이 지내는 여성들도 본 국 자녀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역시 경제활동을 중시하게 된다.

한족여성들의 경제적 성취 욕구는 한국사회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적, 문화적 자본 활용이 낮은 한족여성은 “육체노동현장”에서 중국인으로서 받는 한국사회의 편견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여성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차별과 배제되는 경험을 통해서 한국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 아닌 한족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돈”때문에 참고 견디기란 쉽지 않다.

이는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현실에서 직장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노동현장에서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더욱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한족여성은 여기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를 진행한다. 법적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사회적 영역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중국인”, “외국인”이 받는 차별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H-1: 但是，一開始上班儿得時候也感覺韓國不怎么好。反而是老板什么的都對我可好了，一直都很好，就是還是溝通不行。 溝通不行，加上有文化差异。韓國歧視中國人 對朝鮮族更歧視吧。
> (H-1: 처음에 한국에서 출근하는데 (부속품조립공장) 한국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다. 사장님은 괜찮은데 어쨌든 나쁘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돼서 힘들다. 거기다 문화차이도 있으니. 한국이 중국을 무시한다, 근데 조선족 더 무시하잖아..)

한족여성이 한국어 언어, 문화자본이 없이 노동시장에 취직하는 경우는 대개 “중국어강사” 와 같은 “타고난” “한족 언어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이거나, “한족”언어자본 이외 영어와 같은 국제통용언

어 자본을 가진 경우는 글로벌한 한국어를 몰라도 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특징을 지닌 전문직만이 가능하다. 이는 한족적인 문화자본보다는 국제적인 언어, 문화자본의 활용이 한국노동시장에서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여기서 “한족”적인 자본밖에 활용이 안 되는 “중국어강사” 직업은 중국에서의 학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다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대학을 다닌 한족여성들은 경제적 성취에서 “박탈감”이 심하다.(필리핀 연구). 반대로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서 직업적으로 “계층 상승”의 효과를 보게 된다.

2) 한국가족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한국가족의 친족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거나 한국가족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한족은 곧 "중국인"의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중국에서의 학력, 문화자본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타고난" 한족문화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 혹은 시부모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반대하는 것도 나타난다. 한족 여성에게 ’애를 잘 키우는’ 역할을 요구할 때 한족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 막히는 것이다. 즉 "사회재생산"역할에만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한국가족의 규범이 한족여성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가족이 지지 하지 않는 경우 한족여성은 스스로 한국사회에서 취직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가족영역내에 머무를 것에 타협하게 된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문화 자본을 연결 해주는 가족 내 ’중간자’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H-2:　孩子大概1周歲的時候吧，我朋友給我打電話，去那儿面試吧，我当時想，我的韓國語不太好，根本就听不懂，怎么面試

啊？ 她說，一起去吧，她一个人去无聊，然后一起去，總公司面試，我的學歷比較高嘛， 雖然我韓國語不好，但是我有學歷呀，然后他們录用我，他們說雖然你的韓國語不好，但是你的專業适合他們，所以他們說你努力學習韓國語吧，我說好吧，我的朋友呢沒有選上，我選上了，所以，我覺得不好意思，我跟我朋友因爲這件事以后，心和心的距离遠了，跟以前不一樣了。 当時有点傷感，也許我不來這儿工作的話，關系還能維持下去，我選上了，她沒選上，她也不好意思，我也不好意思。現在兩个人沒有以前近。

她是我公公朋友的儿媳婦，她也是中國人。所以，我來以后沒有朋友啊，誰也不認識，所以公公介紹我認識她，認識以后兩个人很近，我來這个公司录取以后，她沒被選上，然后兩个人沒那么近，可是還是打電話，之后開始一直工作。

(H-2: 애가 한 살 정도 됐을때 내 친구가 전화와서 같이 면접 보러 갔다. 난 한국어를 그 때 잘 못하고 거의 못알아 들었다. 친구가 가자 해서 갔는데 내가 합격됐다. 중국어 교재만들고 가르치는 곳인데 내가 전공도 맞고 학력이 높았다. 그래서 친구가 탈락했고 이 일로 서로 서먹해졌다. 그 친구도 시아버님이 소개해준건데 같은 중국사람이다.)

H-5: 아니요. 신랑 반대했어요. 일 보다 아이들을 잘 보고. 그니까 가계 돕는 일이랑 간단한 좀 봐주고, 완전히 전업주부 아니고, 아침 나도 왔다 갔다 했어. 아이도 잘 봐주고, 가계 일도 이렇게.

H-9: 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다가 기회가 맞지 않아서 집에서 금융권 자격증 공부를 했다.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 남편은 내가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을 지지했다.

내가 총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이들은 대개 공장직원, 식당종업원, 학원 중국어강사, 기업전문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직장에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는 직장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사적인 영역에서 인맥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노동시장에서 "중국인"으로 무시받는 경험, 혹은 무시 받지 않더라도 한국노동시장에서의 남녀규범 등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경험은 유사하게 가족영역 내에서도 겪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족여성들이 가족규범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에는 이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곳이 아닌 것이다. 경제영역에서 인맥이 쌓이고 발전해가는 경우는 2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족여성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다.

직장에 같은 중국인(조선족 한족 포함)이라는 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이들에게 안정적인 공동체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결혼이주자는 한국에 장기체류 할 사람들이지만 직장에서 만나는 기타 중국인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 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것은 한국노동시장이 외국인에게 열어주는 기회공간이 적기 때문에 한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과 관계 된다.

한족여성들은 가정영역과 노동시장영역을 오가면서 사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스스로도 직장에서는 일만 하는 공간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기타 한국인, 중국인과 사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기를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한족들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인과의 유대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면 같은 한족, 혹은 같은 중국인 끼리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가

정 이외 직장영역까지 두 영역을 오가는 한족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육아부담이 큰 것은 모든 여성들이 가정영역에서 느끼는 사회적 이슈이지만 한족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가정영역에만 있는 사람은 노동시장영역의 진입을 갈망하거나 혹은 차선의 선택으로 이주자공동체거나 한국인과의 인적관계 형성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이 허락될 수 있다. 그런데 가정 영역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은 두 개의 영역을 오고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정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타 공동체영역의 삶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H-2: 我的生活現在很穩定，我有自己的家，有自己的工作，有孩子，什么都有現在。沒有什么特別需要的東西。

(H-2: 내 지금의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다. 집과 가정이 있고, 직장 있고, 애도 있으니 뭐나 다 있다. 특별이 뭔가 필요한 게 없다.)

제5장: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에 관한 비교 분석

조선족과 한족여성이 가족에 생활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비교는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찰 된 두 영역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 출신의 여성들이 가족생활과 경제활동 두 영역 모두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생활영역에서 서론에서 설명했지만 국제결혼을 감행한 동기는 '이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즉 결혼과 취업을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돈 벌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1절: 가족생활영역에서의 비교

1) 가사와 가족관계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정착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여성들의 시각으로 가사 관련 및 관계적 차원에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족의 경우:

C-1: ... 애들이 예를 들면, 감기 걸리고 아프면, 니 때문에, (남편이) 나보고. 너무 황당한게. 자식은 혼자서 혼자 자식이 아니잖아. 나는 걔네들 아프로 감기 걸리면 내가 가슴 더 아픈 사람인데, 아프면 다 니탓. 애들이 니 때문에 감기 걸렸어. 어쨌어.

C-2: 조선족 남자도 여기 풍습 그런게 있어서 좀 그죠. 완전 중국분하고 틀리죠. 근데 뭐라고 할가. 그래도 한국이 더 심하죠. 아무래도 중국분들은 거기서 태여났기 때문에 좀 남자, 이거는 여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집념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랑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도,

남자 말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도, 여기 오니까 남편들도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한족의 경우:

H-2: 以前這个家，爸爸的性格比較不好，媽媽和我愛人不敢多說話，我來韓國以后，我的性格本來不听話的。你說的話不對的話我干嘛要听呀，我就不听。以前我的丈夫說韓國人父母如果說是月亮，那么是太陽也要說是月亮，但我就感覺是太陽怎么是月亮，眼睛有毛病啊，不可能，我就不能那么做，我在北京的時候就跟他說過。

有一次，吃午飯的時候，婆婆不在家，一起吃飯的時候，公公說拿那个湯給妹妹吃，丈夫妹妹，妹妹以前還沒有結婚。我就想，一起吃飯跟我說拿湯給妹妹吃，然后我心里不高興啊，但是我去了。

(H-2: 예전에 이 집에서 시아버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찍소리도 못 했는데, 나는 말 잘 듣는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온 뒤에 상대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듣는다. 내가 한국에 오기전에 남편이 나에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해를 가리키고) 달이라고 하면 달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없다고 북경에서 남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한번은 점심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안 계시고 시아버님,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나보고 시누이한테 국을 떠다 주라고 하셔서 화났다. 같이 밥 먹는 중인데 왜 나보고 어린 시누이 한테 국 떠줘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기분 나빴지만 국 뜨러 갔다.)

H-4: 覺得韓國社會還是有点大男子主義，因爲我們那邊女孩都比較獨立的，像重慶女孩子火爆，而且一般是男主內，男孩子不僅要去賺錢，包所有家務，就像我爸爸一樣。但是到這邊來以后，不過我從小被培養的獨立，反而對婆家人來說撿了个便宜。現在家務事和婆婆分着做，老公也會帮忙。

(H-4: 한국은 가부장적이다. 우리 중경(여성의 고향)에서는 여자들이 다 독립적이고 성격이 화끈하다. 그리고 보통은 남자들이 가사도 하고 돈도 벌어 온다. 모든 가사를 다 한다 우리 아빠처럼.)

육아문제, 가사문제에 있어서 한국남성들이 부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술한 연구 참여자의 관점 외 H-1은 필자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당신의 생활에 궁금해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바로 “궁금해 한다. 나는 한국 남성은 가부장적이다. 시집가지 말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또 자신의 남편은 집에 오면 일 할 줄 알아도 해주지 않는다고 좀 ‘게으르다’는 표현을 썼다. 현재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은 한편으로는 출-퇴근이 힘든 남편을 이해한다고 드러낸다. "내가 직장생활 한다면 나도 집에 오면 일하기 싫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과거 한족여성이 ’직장생활’과 같은 경제활동영역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은 중국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즉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은 두 민족 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족여성은 조선족 여성보다 한국가족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이것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관계이므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가족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한족여성들은 중국에서 가정생활에서 분담해야 되는 가사 등 면에서 남성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족여성들은 조선족보다 한국가족 분위기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여성이라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외에 이는 '가족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한 가족구성원의 의미는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평등과 세대적인 평등관계도 요구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적 관계는 한족 여성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한 관계로 보인다는 것이다.

> 한족의 경우:
> H-2: 這是我的生活方式，公公也有時候吵架，對我特別好，可是有時候說話不喜歡听， 那我就跟他吵架。公公覺得他錯了就給我打電話，就對我不一樣，跟婆婆，老公不說錯。
> (H-2: 이건 내 생활 방식이다. 시아버님과도 싸우고. 나한테 매우 잘 해주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논쟁한다. 시아버님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나에게 전화로 다시 말하는데 나한테만 그런다. 시어머님과 아들한테는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

한족에 비해 조선족은 중국에서도 가족분위기가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은 있지만 대응함에 있어서 거부반응이 적거나 순응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정도나 방식에 있어서 또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가족이 조선족여성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여성'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 가족생활영

역에서 아내, 엄마, 며느리 등 역할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사회의 분위기도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족 여성은 본인이 감당하는 역할에 대해 과거생활의 연장선에서 수행한다고 느끼는 면이 있다.

조선족의 경우:

c-1: 처음에는 한 국 사람 만날 때 같은 민족이라고 느꼈지, 이질적이라고 느낀 적 없었어. 일단 대화가 되니까, 언어 소통이 되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와서 김치 같은 거나 이런거 다 담아 먹었어.

c-4: 깜짝 놀라더라구, 연변에서 와서 말 못하는가 했대, 나보고, 처음 이제 우리 아저씨 친척, 형제한테 갈 때, 안 그렇네, 좋아하더란 말다, 의외로 엄청, 작은 엄마는 안 그렇네, 그러니까 위축되고 그런 건 없었다. 저네하고 애기해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나이 어려서, 어리다보단 젊어서 왔잖아, 늙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젊어서 왔으니까, 좀 뭐 할 줄 아니까, 어디가 부엌에 놔두 어정쩡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가족생활에 있어서 한국가족이 바라는 '여성'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 자신의 한국 가족 내에서의 위치를 설명할 때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 된다. '민족'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는 의미는 가족생활내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자녀양육과 가족계획

남편, 시부모 등 한국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문

화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천 이외 자녀양육 면에서도 두 민족 집단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조선족은 '한국적인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반면, 한족은 '한국적'이면서도 '한족적'인 문화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

이것은 조선족 여성이 초기에 결혼이주로 한국에 오던 시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보다 좋지 않은 것과도 관련된다. 굳이 '중국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조선족여성들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조선족의 경우:

C-6: 애 친구 엄마들은 다 한 동네서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지. 중국에서 왔단 걸 안 가르켜주고 싶지. 혹시 고향 물어보면 남편 고향을 말하지. 거기 가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부담감은 있지, 괜히,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애도 알게 된지도 얼마 안돼,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준게 아니라, 우연하게 알려줬지. 원래 가르켜 줘야 되는데 안 가르켜줘서, 또 가르켜 주고 싶지도 않았고. 뭐 엄마의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몰라도, 학교두 다녀보고 학교 친구엄마도 사귀다 보면, 확실히, 뭐 다문화 다문화 하지만은, 그런 차별이 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두 안했고, 얼마전에 얘기해줬지.

C-2: 우리 애가 큰 애는 좀, 여자애들은 하얗지는 않고, 그게 적응이 잘 될가, 欺?를 받지 않을가 왜냐면 애가 좀 예민하고. 가끔은 질 문하고, 한번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중국 갔다왔어요. 그리구 갔다와서 체험하고 사진을 제출해야돼요. 너 중국이야? 너네 엄마 중국인이야? 엄마 나 뭐야, 뭐야, 인제. 친구들이 얘를 중국인이라고 놀리나, 놀리는 건 아

니고, 하여튼 그런 관심이 있구나. 조선족 애들이니까 欺? 받고 이런건 자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작은 애는 좀 다문화 아이들 두 명인가, 중국어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애들이 야 니 중국애냐? 너네 엄마 중국사람이냐? 물어보는가봐요, 한 몇번인가 와서 물어봐, 엄마 나 중국사람이야? 그러구,
<질문: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저는 뭐라고 , 응,. 엄마 옛날에는 중국이지만, 지금은 한국국적 됐어.

조선족 여성들과 한족여성의 공통점은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즉 근래 '중국의 부상' 등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조선족 여성들도 '중국' 관련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더 많은 자원과 선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조선족 여성의 학력에 상관없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족의 경우:
C-2: 중국에 뭐 좋은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스트레서 받지는 않고 있어요.
<질문: 그럼 지금 애들한테 중국어 교육 시키고 있어요?>
예,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나도 좀 일찍부터 배워줄걸, 큰 애는 좀 큰 다음에 할라니까 안할라 그러구. 근데 여기 사람들 한문 어려워 하잖아요, 근데 한문 어려워 하지 않아요. 그런거는 있어요. 둘째두 보면 학교서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오면은 집에 오면 지혼자 인터넷 싸이트 들어가 티비도, 지혼자 틀어놓고 봐, 그만큼, 싫어하지 않아. 그게 진짜 좋아요.

한족의 경우:

H-5: 시아버지는 좋아했지,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생김새는 다르지 않잖아, 그거 하나만. 말만 그렇구 그것 뿐이지. 시어머니는 문화소통, 먹는거랑, 틀리잖아, 김치만 먹고 ,난 못 먹잖아, 복건은 배추랑 고기 넣어서 볶잖아, 내가 먹는거 신기하고, 내가 당신들 먹는거 신기하고.

<질문: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먹아야지, 김치도 만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애들 위해서. 어떤 애들은 김치도 못 먹는다 그런 소리 싫어서. 이젠 매운것도 먹고.

한족여성은 '한국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 아내 혹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거부감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이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한국방식을 더 선호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H-2 는 "솔직히 중국보다 한국의 교육환경이 더 좋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에는 여기서 교육 받고 나중에 다시 중국에 가서 '두 번째 국가'에 대한 체험을 하면 좋다고 본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인 시어머니로부터 '자녀에 대한 보살핌과 교육방식'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에게 한국적인 문화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족문화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한국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다. H-8 은 가족생활에서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표현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는 똑같이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족여성에게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조선족 중에서는 고학력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즉 중국에 돌아갔을 때 상응한 문화적, 경제적, 인적 자본이 얼마나 있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학력과 사회지위를 떠나 한국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 외국인, 조선족으로서 받는 차별, 경제적 압력 등 현실적인 이유로 중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족의 경우:

C-3: 아이 중국가 살지무. 이기 있으므느 집두 못 쓰구, 내 이번에 가서 집두 사났어, 중국에. 사났다. 그래 조금 벌어가지구 늙으마게는 어디 좋으므 어디서 살지므. 게 앞으로사 중국서 살자지므, 어째 그랭가무 여기 옴 집두 크게 없재. 게 중국에는 집이 있재.

한족의 경우:

H-2: 适應不了，怎么說呀，韓國文化有点壓抑。家庭也不一樣，我們家呢這么開放，但是還是有壓抑感，我一般生活在學校，對社會接触的不多，這个家庭沒有什么特別壓抑，都在努力，我一般在家，沒事儿就在家，几乎沒有自己的時間，所以公公婆婆喜歡呀。我對家庭很重視，對孩子，對老公，對他們比較重視，所以他們覺得挺好。壓抑感呢，文化不同，語言理解能力不同，所以有時候發生誤會呀，在這儿生活，現在不方便的也不是很多。有孩子的時候已經不想自己怎么樣了。

(H-2: 적응하기 어렵다. 한국문화는 억압적이다. 가족내에서도 그렇다. 우리 집은 개방적인 것도 억압된 느낌이 있다. 난 사회와 접촉이 많지 않다. 이 집은 특별하게 압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 노력하고 있다. 난 보통 집에 있고 내 개인적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부모가 좋아하신다. 내가 가정을 중시하니까.

억압적인 것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이해가 달라서 오해도 생기고 그렇다. 이제는 여기 오래 살아서 너무 불편한 것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이주한 뒤 여성들은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 자녀를 두었거나, 남편이 한국에서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계획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H-8의 경우 나중에 애가 다 크면 남편이랑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H-5는 "한국이 진짜 못 살 때는 돌아가야돼, 다 데리고 가서, 일해도 괜찮잖아, 먹고 사니까 ,이기가도 살고, 저기가도 살고. 나쁜 일 안 생기면 그냥 여기서 살고 ,애들 다 크면 그때 둘이서 왔다갔다 해도 괜찮을거야. " 라고 중국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 이에 반해 경제적, 사회적 자기실현을 위해서 중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고향이 아니라, 북경, 상해 등 대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국의 '호적제도'로 인한 거주정착의 한계에 있어서 원래부터 대도시 출신 이외의 중국인 여성들은 역시 중국으로 다시 가서 발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특히 조선족 여성의 경우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향이 한족에 비해 더 드러난다.

제2절: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비교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중국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에서 기혼여성일지라도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지되는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한국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왜 경제활동을 하게 됐는지는 개인의 '자기실현'의 차원과 '가족부양'의 책임 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차원의 동기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직종에 상관없이 서비스업이나 노무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 2장에서 분석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에서도 보았듯이 과거 전문직, 관리직에 있던 비율은 한국으로 이주한 뒤 급격히 감소하고 거의 서비스직종과 노무직에 종사하게 된다. 특히 현재 이주한 대부분의 여성의 학력이 높지 않은데 이것은 이주한 세대가 중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 이전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학력 적 우위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특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생기면서 결혼이주자도 노동이주자와 함께 사회의 '하층'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조선족과 한족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선족 여성은 서비스직종과 가사노무직종에 더 많이 집중되고 한족여성은 기타 단순노무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족은 언어, 문화의 근접성으로 인해 서비스업, 가사 등 직종에서 기타 출신의 이주자에 비해 우세를 가지게 된다. 즉 한국인을 직접 상대하는 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족여성은 조선족 제외한 기타 국가출신의 여성에 비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것은 조선족들이 기존의 서비스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한족들은 조선족을 통해 언어적 장벽을 어느 정도 넘어 설 수 있다.

최근에는 고학력의 중국여성들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주하는 세대는 중국에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유학 혹은 취직으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한족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범위는 제한적이다. 1차적으로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하여 대부분 중국어와 관련된 직업 즉 중국어 강사와 같은 직종에 집중된다. 이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나마 학력과 같은 우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어' 관심이 높고 시장에 진출한 어학원 및 정부에서 '다문화정책'의 지원으로 '다문화 강사'의 선발 등 고학력이 아닐지라도 '한족'적인 문화 우세로 중국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 '중국어 배우는 열'이 일어나면서 중국어시장에서 강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조선족 여성의 경우 '민족'적 차원에서 언어,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취직활동이 보다 다양할 수 있다. 일반 사무직부터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기타 이주자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조선족'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한국계-중국인'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에서 관계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즉 민족으로서의 '조선족' 보다는 한국어, 한국문화를 잘 아는 중국인으로서 필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C-5: 회사에서 투자를 해외투자하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시장에 투자한단 것 보다는, 내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 투자한단게 좀 더 어필이 되고.

경제활동영역에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서비스직종에서는 조선족들이 직접 한국인과 대면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조선족은 '교포라고 무시 한다.' 는 차별 경험을 하게 되고 한족여성은 기타 단순노무 및 서비스 영역에서 '중국인이라고 무시한다.'는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과 배제는 사실 민족, 국가적인 이유보다는 직업 환경에서 이주자가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할 때 나타난다. 다만 차별과 배제의 표현이 다른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

C-4: 한번은 딱 아줌마들이 시계를 여기 시간관념이 엄청 심하잖아, 딱 봐서 늦으니까 (한국 주인사장이) 하는 말이, "떨거지 같은 것들이 아직 안온다"고,...

C-6: 직장 생활 할때는 뭐 공개를 햇으니까 차별이라는게 대놓고 얘기 안했겠지만, 느낀 적은 있지 그래도. 그냥 무시하는 투는 아닌데, 암튼 그런 느낌이라는게 오지. 대화를 하다 보면, 단지 기분 나쁘게는 안하니까, 그래두 느끼지, 마음으로는, 탁 놀래면서 보는 눈빛,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기해 하는 느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두 거기서 살 다 보면, 고향에 살다 보면, 뭐 그 안쪽에 뭐지 안쪽이라 해야 되니, 뭐야 싼둥 이쪽에 칭하이 이런 지역에 오면 편견을 하듯이, 겉으로는 무시는 안해도 그런 차별을 조금씩 하는 건 똑같지, 다. 우리도 무시하잖아, 신발 구두 닦이 아저씨 보면 다 그런 일 하는 애들, 3d 직종, 건설집짓는데 애들 보면 다 그런 거(무시) 하잖아. (우리가 한국에 와서 반대로) 똑같이 느끼지.

한족의 경우:

H-1: 但是，一開始上班儿得時候也感覺韓國不怎么好。反而是老板什么的都對我可好了，一直都很好，就是還是溝通不行。 溝通不行，加上有文化差异。韓國歧視中國人 對朝鮮族更歧視吧。
(H-1: 처음에 한국에서 출근하는데 (부속품조립공장) 한국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다. 사장님은 괜찮은데 어쨌든 나쁘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돼서 힘들다. 거기다 문화차이도 있으니. 한국이 중국을 무시한다, 근데 조선족 더 무시하잖아..)

한국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조선족여성은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특히 노동이주자는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가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법적 체류권이 고용주와 관계가 없는 것과도 관계된다. 조선족들이 한국인의 차별에 대항하는 논리는 곧 '같은 동포'와 '열심히 일한 대가'이다. 경제활동에서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있고 또 같은 동포라는 생각은 그들이 한국사회로부터 오는 차별과 배제를 참고 순응할 수 없게 만든다. C-4는 한국인 사장이 같은 '조선족' 출신의 기타 피고용자들에 대해 "떨거지 같은 것 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박한다. 그러나 '민족'논리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여와 보상'에 관한 논리로 '투쟁'하는 것이다.

C-4: 그래서 내 사장님 말 조심하라구, 진짜 양심없다구. 왜, 당신은 어째 오는 시간만 계산하고 오는 시간은 계산 안하냐고. 내가 보면 열시 교대니까, 어떤 언니들이 40분씩 늦게 가, 악착 같은 손님들이, 이 언니들이, 근데 우유 한병도 안 사줘요. 그리고 시간제기 때문에, 돈 좀 더 줘야재, 근데 자기 맘이 내키면 한 2천씩 더 주고, 안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내는데, 그 (조선족)언니들이 다음날 오길래서 참고 가고 하는데. 당신이 오는 시간 계산하고 가는 시간 계산 안하고, 언니

들 보통 보면 이삼십분 늦게는 사십분씩 늦게 가는데 돈 줘요? 우유 한 컵 사주냐고, 그래까나, 니네는 잘 났다.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거야.
대신 우리도 그렇잖아, 당당하게 해가지고 돈 받는 건데, 주고 받는거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교포라고, 이런거 따지지 말고, 좋은 사람 많길래 돌아가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면 돌아가겠니, 안되지.

한족여성들은 직업환경에서 오는 차별과 배제에 민감한 편이 아니다. '외국인'이라서, '중국인이라서' 차별한다는 것에 대항해야 되는 논리가 부재하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농민공'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되는 현상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경제활동에서 기여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H-1 의 경우 한국인들이 직장에서 '무시' 당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그냥 일부 '한국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는 것과 연관시키며 한국에서의 '조선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인정'하면서 강하게 반항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래는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느끼는 '차별'에 대한 논리를 보면, 그 준거집단은 '기타 이주자'들이다. 이것은 조선족들이 '한국인'과 '교포'의 위치를 대조하면서 대항하는 논리와 다른 것이다.

H-4:人家也有戴有色眼鏡的也有，不過最近几年中國過來的條件都挺好的，隨着國家的强大吧，整个素質都不一樣，我們中國人學韓語比別國人快，理解力也快。
(H-4: 한국사람들 중에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다. 국가가 강대해지니까 전체 소질이 달라졌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것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보다 빠르고 이해력도 좋다.)

고학력의 중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곧 '외국인'으로서의 발전공간이 제한적임을 깨닫고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불공평함을 호소한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민감하다. 그러나 가족생활영역에서 성 역할에 대한 불평등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논리가 평등한 가족구성원임을 주장하나 직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경우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경제활동 영역에서 '대항' 하는 것은 찾아 보기 힘들다. 개인적인 문제보다 한국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직업분류로 볼 때 '상층'에 속하는 중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배제'와 '차별'은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개변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H-8은 가족생활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에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한국문화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직장생활에서는 역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대응방식은 순응적인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

C-5: 여기서두 중국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두 앞으로 올라 갈 수 있는 룸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고, 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는 딱히 한국사람과 대우는, 솔직히 똑같슴다. 연봉 똑 같고, 그런건 없는데, 향후에 발전 공간에서는 차이가 난단 말임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것 같고

한족의 경우:

H-8: 회사에서 여성에 대해 차별이 있는데 정말 안 좋다. 왜 여자한테 '문서 복사'와 같은 일들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은

불공평하다.

제3절: 소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족생활영역에서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들이 대면하는 첫 번째 장벽이고 이에 대해 한족여성이 더욱 강하게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 등 면에서는 중국어, 문화 교육과 함께 '한국 엄마'의 역할에 순응하는 편이고 조선족은 '한국 엄마' 역할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경제활동영역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배제와 차별에 조선족들이 더욱 강하게 대항한다. 그 논리는 곧 '동포'로 시작된다. 한족여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더욱 민감하지만 가족생활에서처럼 적극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편이다.

위 1절과 2절에서 비교분석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표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1은 가족생활영역에서 이주여성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환경과 이에 대한 해석방식과 대응방식이다. 표2는 경제활동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환경과 이주여성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대응방식이다.

<표 4: 가족생활영역>

구조적 환경	**구조적 환경을** 경험·해석하는 **이주여성의 주관적 방식**	
	조선족 여성	**한족 여성**
가족을 매개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포섭의 논리	수용	대항
	'한민족' 강조 - 차이가 덜 주목받음	'결혼했으니 한국 사람'

	이주여성의 주관적 차원	조선족 여성	한족 여성
가부장적 가족규범	경험·해석하는 방식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서 무시 받는다고 해석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차별
	대응방식	**수용**	**대항**
	원인	동질성 -조선족사회 가족문화	이질성 -한족 가족문화
	근거	가족 내 자신의 위치 확보에 유리	가족의 평등한 구성원임을 강조

<표 5: 경제활동영역>

구조적 환경	개인 차원		조선족여성	한족여성
이주자 & 여성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 느끼는 방식	공통점	외국인 차별과 배제	동일
		차이점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서 무시 받는다고 해석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차별
	대응방식	차이점	**대항**	**수용**
	원인		**준거집단** - 한국인	**준거집단** - 조선족 및 기타 이주자
	근거		'동포'의식으로부터 출발 - 평등한 자격 주장	중국 내 이동인구 차별과 배제 논리를 내면화 예: 중국 내 '농민공'에 대한 차별과 배제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영역의 관계는 갈라놓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영역 내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중국과 가장 다른 점이다. 여성들이 결혼도 하지만 직장생활을 사회적 지위로 여기는 것이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 이외,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거나 자기실현의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가족생활영역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들의 주체적인 욕구를 간과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법적 권리가 가족영역으로부터 형성된다. 즉 가족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획득하고 경제활동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할 경

우, 조선족은 언어, 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한국가족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혹은 친족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족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있고, 친족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이 결핍하기 때문에 한국가족의 지지 여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의 진입을 막아버린다면 한족여성의 경우 가족생활영역에 갇히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의 두 영역을 오가는 삶이 사회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생활만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혼과 취업을 동시에 지향하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획득에 관한 시민권 연구에 기초하여 '일상경험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가족, 경제 등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좌절되는지 및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상경험을 접근함에 있어서 '가족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는 간과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결혼이주 현상에 대해 '결혼을 위한 이주'라는 관점은 '위장결혼'이 아닌 여성들에게 사회적 편견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상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시각으로 국제결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자는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 결혼이주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에 결혼이주여성의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출신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중국 출신은 현재 조선족과 한족이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규모가 출신 국가별로 가장 큰 집단이고 민족 집단 별로 보면 조선족여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족여성이 많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출신 국가 간의 특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민족' 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차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 하는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법적 지위가 형성과정과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대응방식을 보았다.

국적법은 1997년도를 기점으로 국제결혼여성의 법적 지위 획득에 관한 절차가 까다롭게 변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법적 지위 획득 문

제에서 '종속적인 존재' 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는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국제결혼을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위장결혼'이 아닌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영역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국제결혼여성의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분석했다.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족과 사회에서 이 여성들에 대한 기대 및 여성들의 주체적인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조선족 여성은 가족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순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중국 조선족 사회의 '가족문화'가 한국사회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여성'들이 도맡아 하는 역할을 오히려 자신의 가족 내 위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조선족은 한국인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받는 차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 하층', '여성', '외국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하층'이라는 것으로 인한 차별에는 '경제적 기여 - 정당한 대가', '동포'논리로 강하게 대항하는데 정당한 권리와 평등한 대우를 주장한다. 즉 한국인의 배제와 차별에 대해 '노동대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아가 '한국인과 평등한'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 '외국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역

할은 가족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문화'에 이질감을 적게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현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 두 사회에는 '민족'에 기반하고 있는 '공민'과 '국민' 개념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족여성은 가족생활에서 '한국인 여성'이 도맡아 하는 가사와 관련된 문화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이것은 한국남성 및 가족문화가 가부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신을 평등한 가족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점까지 강조하고 있다. 중국사회에서 가족 내 가사와 관련하여 '남성'들이 도맡아 하는 부분이 컸던 관계로 한족 여성들은 '성적 평등'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가사 및 가족 내 관계에서의 평등성을 생각하고 있고 이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족여성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국가족문화에 통합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활동영역에서 한족여성은 '외국인', '여성', '경제적 하층'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해 가족생활에서처럼 강하게 '대항'하지 않는다. 최근 증가하는 고학력여성의 경우 '차별'에 대해 '별로 느끼지 못 한다.'고 하지만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보다 민감하고 비판적이지만 가족영역에서처럼 강한 대응을 하진 않는다.

5장에 서는 3장과 4장에서 기술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재구성을 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조선족과 한족이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원이 다르다. 이런 민족적 차이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다른 '대응방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출신 국가가 같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도 있다.

한국에서 중국 여성들에게 가족생활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포섭과 배제'라는 두 가지 구조적 환경과 마주하게 한다. 남편과의 가사, 육아 분담 및 시부모 등 기타 가족과의 관계 등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외국인에 대한 포섭과 배제, 민족의 의미 등을 이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줬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민족적 자원'등을 동원하여 한국가족 내에서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가족생활에서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은 '가부장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지만 조선족 여성이 상대적으로 순응적인 특징을 보이고 한족여성들이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출신국가의 정치, 경제 등 환경은 비슷하지만 민족 집단 별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가족영역'내의 문화는 서로 상이한 것과 관계된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자들은 노동이주자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서비스, 가사, 단순노무 등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에 있어 고용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이주자와 다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고용주 혹은 직장 동료와 평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차별과 배제를 받는 공통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하층', '외국인', '여성' 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고학력의 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국제결혼 사례중에서는 소수에 속한다. 이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전문직, 관리직 등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는 하층에 속하지 않지만 역시 '여성'과 '외국인'이라는 두 가지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조선족여성은 가족생활에서와 반대로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차별'

에 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한족여성들이 가족영역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과 달리 조선족은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비판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특히 '경제적 하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 받은 경험이 많다.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한족보다 더 드러나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면에서는 한족들이 더욱 강조한다. 그것은 같은 중국인지만 다른 민족 집단의 인구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한족은 중국에서 주류민족으로서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다. 조선족은 한국에서 외국인인 동시에 동포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도 한족에 비해 다양성을 나타나게 된다.

제2절: 비교평가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중국출신은 가장 먼저 이주하기 시작하고 그 규모도 가장 큰 집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의 출신 여성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일상경험 세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초기 한국사회에 '부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으로부터 최근 주체적인 관점으로 이들의 출신국, 집단별 차이에 주목해야 된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대 및 대응방식과 관련된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구적·제도적·물질적 설명에 대한 비판과 보완으로 문화적 차원(최종렬, 2009)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족과 한족은 같은 국가 그러나 다른 민족 집단의 출신으로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민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원의 차이에서 인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가의 출신으로서 공유하는 공통의 특징들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

한 남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출신도 유사하나 경험이 있지만 기타 국가에 비해 친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한국 양국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서로 상대방의 국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하거나 스스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출신 여성은 '계층하락'과 관련된 현상이 드물다. 즉 본국에서 학력 등 면에서 상층인 여성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필리핀(김희주 외, 2007), 몽골(김현미 외, 2008) 여성과 같은 현상을 보기 힘들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도 '대학졸업'이라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통일교'라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목격되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특히 출신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 혹은 종교 등을 중요한 설명변수로 제시하지만 중국의 경우 종교를 통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목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제외하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중국 제외하면 거의 2000년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본국에서 고학력이지만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이는 이 시기 한국과 본 출신국의 경제력과 같은 차이에서 인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90년대에 이주가 나타나던 초반에는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컸지만,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격차가 과거처럼 심하지 않게 되었다.

경제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여성들의 학력수준에서 볼 때, 90년대 이주하던 여성들이 중국에서의 교육환경과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대학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90년대 이주하던 여성 대부분은 중국의 교육수준 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거주지로 봤을 때 중국 출신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베트남, 필리핀 등 국가는 농촌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었다. 이는 곧 일상 경험에 영향을 마치는 환경구조가 다름을 설명한다.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여성들이 받게 되는 거시적 구조는 비슷하다. 법적 지위 획득과 지원정책과 같은 면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문화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전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엄격한 위계서열로 인한 남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여 부부관계보다는 부자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남인숙 외, 2011).

가족생활영역에서 중국출신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 및 이주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논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조선족과 한족은 공통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선족은 '여성'역할에 덜 비판적이고 한족은 '여성' 역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외부인'(H-2 사례)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는 해석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족은 민족적 차원에서 가족문화에 '이질감'을 덜 느끼지만 한족은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족의 경우 적극적인 대항을 취하거나 거부를 보이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하며 한국가족문화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의 경우 역시 한국가족문화와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지만 한국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국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다." 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김희주, 2007). 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들의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베트남 일반대중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왔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적극적인 여성 참여 요구에 따라 베트남의 여성들은 직접 전쟁에 가담하는 한편 후방에서는 생산의 주역이었다(정연식・황연주, 2004; 정혜영 외, 2010, 재인용). 남편들은 아내가 갈등 상황에서 소리 지르거나 대들지 않고 말없이 울고 참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싸우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이 문제해결을 위해 의논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표현하였다(정혜영 외, 2010). 사회적으로도 '베트남'여성은 '순종'적이라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입국하는 여성들이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크고 시부모를 모시는 농촌에 많이 집중 되다보니 이들은 한국가족의 '가부장적 문화' 및 민족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것들로 인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갈등의 구조는 비슷하나 대응방식은 중국출신 한족 여성들과 다른 점이 보인다. '여성 지위'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지만 중국 출신들이 대응방식이 더욱 강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족 여성도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과 민족적으로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위기에서 문화적인 억압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계층'적 차원의 갈등이 더 심하다. 베트남 여성과 비교해 보면 언어적,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장벽'이 적고 또 친지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영역에서 '갇혀'있는 경우가 적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및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여성들의 가족생활 내에서의 관계 및 경제활동에서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에 '가정영역'의 적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던 연구를 보완하고자 시민권 논리와 주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시민권 논리가 기존에 법적 지위의 획득에 관한 고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법적으로 '국민국가에 입장'을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실 세계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요소에 의해 실현되고 좌절되며 이에 대한 이들의 대응방식 등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시민권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주체적인 관점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별 차이를 탐색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본 연구는 중국이라는 동일한 국가에서 이주한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에 관한 비교연구로서 민족적 차이가 이주와 정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구성단위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사회의 기본단위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대화과정에 전통가족의 해체와 다양한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와 함께 국제결혼이라는 현상은 가족의 근대화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두 국가로서 수교한지 이제 20년을 넘기고 있지만 사회적 교류는 급증하고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은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국가와 부동한 민족 집단인 조선족여성과 한족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가족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한국은 이주한 기타 국가에 비해 조선족에게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이고, 한족에게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로서 그 특수성이 있다. 한국에 이주한 뒤 조선족과 한족의 기존 관계도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결혼이주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결혼과 취업을 선택하는 양상이 보이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은 부동한 사회 간의 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시민권에 관한 한계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현장이다.

민족적 차이가 결혼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욕구와 현실의 괴리 및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주한 국가인 한국사회의 가족문화, 경제 환경은 이주자를 어떤 식으로 배제하거나 포용하는지 그 논리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족적 차이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과 한족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학력변수 및 이주방식과 같은 내용만 언급한 것은 충분한 내부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주와 정착과정에 있어 '이주자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선족과 같은 경우 한국에 이미 친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확실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족의 경우 기타 출신 국가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친지네트워크 같은 이주자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자공동체를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 미치는 부분만 언급했다.

참고문헌

1. 국내연구논문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pp. 191~227.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결혼한중국조선족여성의결혼생활실태에관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2호, 1999, pp. 61-80.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권 2호, pp31~72.

김영선, 2011, “결혼 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東亞法學 第52號.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pp.81~106.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통권 제70호)

김현미, 2008.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 만들기: 문화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 Studies Vol.18 No.3.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 24권 1호.

김형균, 2006.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5호 겨울. pp. 33~66.

권태환, 박광성.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 변화-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pp. 61~89.

남인숙, 장혼성, 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봄/여름.

남인숙, 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6월 pp.99~108.

문경연, 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 한족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신규,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와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과정에 대한 질적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8기 1호.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박해광, 2010. "국제결혼 이주의 서사". 한국사회학연구 제2호 pp.85~110.
서운석, 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분석: 중국지역 출신 여성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2호 (통권 14호)
설동훈, 윤홍식,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제23권 제2호.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73~100.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1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pp 189~219.
이진영, 박우, 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이철우, 2004.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411~416.
이철우, 2008.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경제와 사회 가을호 (통권 제79호)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pp. 73~106.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pp.258~298.
이혜경, 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학 제 25 호. pp. 147-166.
이희영, 2007.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pp.207~241.
임채완, 2008. "지구화시대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활동과 모국: 동남아 화인과 중국조선족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의 제48집 1호.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pp. 63~90.
장미경, 2001. "시민권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pp. 59~77.
전형배, 2009. "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法曹 2009·10(Vol.637). pp. 65~107.
정근식, 염미경,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2000(9): 237-280.
정기선, 이선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9 No.1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20집.
정혜영, 김진우, 2010.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 2 호.
최금해,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제15호 pp. 220~244.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제 72 권 1호 pp. 143~188.
최금해, 2010. “고학력 조선족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재외한인연궁 제 22 호 pp. 139~173.
최종렬, 2009.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베트남 이주여성의 행위전략-은혜와 홍로안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 한국사회학 제 43집 4호 pp 107~146.
최현, 2004. "한국 시티즌십-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한승완, 2010.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헌법애국주의'-한국 국민(민족)정체

성의 변형과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제20호.
황정미, 2011. "초국가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제27권 4호. pp. 111~143.
김광억, 2005. 『종족과 민족』. 아카넷.
김승권 외,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셀 사라자르 파레냐스, 2001.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이연.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 小花.
브라이언 S. 터너, 1986.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 박철현 옮김. 일신사.
베네딕트 앤더슨. 1983.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옮김. 나남.
월러스틴, 임마누엘(I.Wallerstein). 1985.『세계체제론』. 정진역 역. 나남.
장경섭, 2008. 『가족. 생애. 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John W. Creswell, 2007.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옮김. 학지사.
Hsia, Hsiao-Chuan, 2007. “Beyond Victimization: The Empowerment of Marriage Migrants in Resisting Globalization”.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회의.
Lee, Hye-Kyung. 2003. "Gender, Migration and Civil Activism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1-2):127~153
Piper, Nicola. 1997. "International M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Piper N. and Roces M.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
Tilly, Charles. 1996. *Citizenship, Identity and Social History*. University Press, Cambrige.
Sassen, Saskia.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ceton, NJ: Princeton Univeisity Press.
Sassen, Saskia.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B. Enrenreich and A.R Hochschild(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Life and Economic Activity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 focused on Korean-Chinese and Han-Chinese of city residents in Korea -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eriences of daily life of marriage migration women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experiences of the Korean-Chinese women and Han-Chinese women to show that the difference of ethnicity how to affects on the way that the expectation of them is realized or frustrated and corresponding attitude of them.

In the Second Chapter we will study about the effects of the law. There are two important law for marriage migration people. Nationality Act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have important effect on marriage migration in Korea because it will give them legal position.

I will analysis the interview about Korean-Chinese women and Han-Chinese women in the Chapter 3 and 4. In the both domain of family life and economic activity, marriage migration women have their own expectation for the Life of Korea. I will focus on the realization and frustration of these expectation and how these women take actions from the subjective aspect. To put it concretely, the main is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law is also important for these women in family life. In the domain of economic activity, the occupation in which these women are engaged and the discrimination form the Korean Society are the main keyword for

understanding.

In the Chapter 5, I will do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Chinese women and Han-Chinese women through reconstruction contents of Chapter 3 and 4. Korean-Chinese and Han-Chinese are from the same country, but they have different culture, language and so on. However, they have common features in so many ways. They, for instance, they received the same education in China. When they married to Korea, there will be some similarities differences in the family life and economic activity.

In family life, all of the Chinese women are criticized about 'patriarchal culture',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exist in ways of response of them. Han-Chinese women have aversion about taking the role like as 'Korean women', but Korean-Chinese women are more malleable then Han-Chinese. This phenomenon is related about the culture about family in China. The different ethnicities have different cultures of family life in China. The culture of Korean-Chinese family is similar with Korean family, these two society have the common feature about patriarchal culture. When Korean-Chinese women take the role lie as 'Korean women', they thought it could be help them take the position in Korean family. Contrary to Korean-Chinese, Han-Chinese women view the gender inequality as the discrimination for them in family.

In the domain of economic activity marriage migration women are also engaged in service, housework like as other labor migration women. But marriage migration women have different legal station with labor migration women. In spite of that legal status, marriage migration women also have the experiences about discrimination. This discrimination include two dimension of that institutional problem and

relationship with people. We can see that the discrimination have some category like as 'lower class', 'foreigner', 'women' and so on.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activity is the way of response which these women are taken. Korean-Chinese women do more struggle for discrimination then Han-Chinese. The way of response for the discrimination which Korean-Chinese women and Han-Chinese women are taken is reversed, especially in 'lower class'. Korean-Chinese women struggle for equal right is based on the logic of 'contribution for economy' and 'compatriot' but have less critical mind of the discrimination about 'women'. Han-Chinese women are more sensive with the discrimination with 'women' then other category, and do little struggle for equal right. All of them have little critical mind about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of foreigner because there is also have strong institution al discrimination for Chinese people when they move to other cities or provinces from their hometown.

In the last Chapter, I will synthesize all above discussions. In conclusion, the experiences in daily life in Korean show that marriage migration women are do some response in subjective way not only 'adjustment for Korean culture'. They have their owen values on gender, foreigner issue and do struggle for equal right as the member of family and society in Korea.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life, economic activity, Korean-Chinese women, Han-Chinese women

Student Number: 2010-23977